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지 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술교육환경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간의 상관분석에 관한 연구  
- 4-6학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지 혜

미술교육환경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간의 상관분석에 관한 연구

- 4-6학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김 지 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지 혜

# 인 준 서

김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초등학교 미술교육환경이 4-6학년 학습자들의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된 물리적 교육환경과 심리적 교육환경을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변인으로 선정한 미술교육환경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변인들의 성별, 학년별, 학교별 차이검증을 하였다. 또한 미술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미술교육환경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성별, 학년별, 학교별에 따른 학습자 특성을 이해하고, 미술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학습흥미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미술교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를 물리적 교육환경에 따라 3곳(미술실이 없고 환경이 열악한 곳, 미술실은 있으나 사용이 잘되지 않는 곳, 최신시설의 미술실을 갖춘 곳)을 선정하고,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년에 약 90명씩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하였다.

설문문항에서는 미술과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이성도, 김혜숙, 2003; 방희정, 2005)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은진, 2004; 김일태, 2000; 황향숙, 2002) 등의 선행논문을 참고로 연구 취지에 맞도록 정리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으로 정의적 특성의 성별, 학년별 차이에 대한 의의도 검증을 위해서는  $t$ 검증을, 학교별 개별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이 사용되었고, 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흥미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과 연합효과분석을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습자의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라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학습흥미’는 학교시설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교육환경’에 따라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간에 의미 있는 상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교육환경’의 하위요인들과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간에는 의미 있는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성별에 따라 ‘교육환경(심리적)’,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 모든 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고, 학습자의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교육환경(물리적)’,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둘째, 학교시설에 따라 ‘물리적 교육환경’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술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 각각의 요인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검증되었다.

넷째, ‘미술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 각각의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미술교육환경이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또한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인들과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와 총 영향력 분석 결과는, 차후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육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수지도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가설	3
3. 연구의 제한점	6
4. 용어정리	7
II. 이론적 배경	8
1. 교육환경	9
1-1. 환경	9
1-2. 교육환경	11
1-3. 교육환경의 중요성	15
(1) 물리적 교육환경	16
① 물리적 교육환경의 개념	16
② 물리적 교육환경의 구성요소	18
③ 미술실의 물리적 교육환경	20
(2) 심리적 교육환경	23
① 심리적 교육환경의 개념	23
② 심리적 교육환경의 구성요소	24
③ 미술교과의 심리적 교육환경	27
2. 자기효능감	32
2-1. 자기효능감의 개념	32
2-2. 자기효능감의 정보원	35
2-3. 자기효능감의 기능과 효과	37
2-4. 미술교과 자기효능감의 중요성	40

3. 성취동기 .....	42
3-1. 성취동기의 개념 .....	42
3-2. 성취동기의 중요성 .....	44
3-3. 미술교과의 성취동기 .....	45
4. 학습흥미 .....	47
4-1. 흥미의 개념 .....	47
4-2. 학습흥미 .....	48
4-3. 미술교과에서의 학습흥미 중요성 .....	49
Ⅲ. 연구의 방법 .....	51
1. 연구방법 및 절차 .....	51
2. 연구도구 .....	52
3. 자료의 처리 .....	54
Ⅳ. 연구가설 검증결과 .....	58
1.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학습자별 차이분석 .....	58
2. 학교 시설에 따른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차이분석 .....	63
3. 미술교육환경이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간의 상관분석 .....	66
4. 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력분석 .....	71
5. 미술교과가 재미있는 이유 다중응답분석 .....	81
V. 논의 .....	89

VI. 결론 및 제언 .....	94
1. 결론 .....	94
2. 제언 .....	97
참 고 문 헌 .....	99
<부록> 설문지 .....	107
ABSTRACT .....	111

## 표 목 차

<표 II-1> .....	12
<표 III-1> .....	52
<표 III-2> .....	53
<표 III-3> .....	54
<표 III-4> .....	57
<표 IV-1> .....	60
<표 IV-2> .....	62
<표 IV-3> .....	65
<표 IV-4> .....	67
<표 IV-5> .....	70
<표 IV-6> .....	73
<표 IV-7> .....	73
<표 IV-8> .....	74
<표 IV-9> .....	75
<표 IV-10> .....	76
<표 IV-11> .....	76
<표 IV-12> .....	77
<표 IV-13> .....	78
<표 IV-14> .....	78
<표 IV-15> .....	79
<표 IV-16> .....	80

<표 IV-17> .....	80
<표 IV-18> .....	83
<표 IV-19> .....	86

## 그림 목 차

<그림 II-1> .....	8
<그림 II-2> .....	34
<그림 IV-1> .....	83
<그림 IV-2> .....	84
<그림 IV-3> .....	84
<그림 IV-4> .....	87
<그림 IV-5> .....	88
<그림 IV-6> .....	8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의 성과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 조건 중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교육환경은, 학습자가 속한 가정, 학교, 사회 전반적인 요소를 염두 해야 하는데, 이는 학습자가 이 모든 곳에 소속되어 학습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 준비된 교사가 있고, 성실한 학생이 있고, 훌륭한 교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에 따라서 교육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미술교육에서 더 큰 영향을 나타낸다. 미술 교육은 다른 교과와 달리 이론 수업 외에도 실기수업이나 미술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은 타 교과보다 넓은 학습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 환경 중에서도 미술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미술 학습 자료와 내용, 시설환경 등으로부터 인지되는 사회 심리적 학급풍토나 분위기 등이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과 상호 작용하여 행동변화에 영향을 준다(Moos, 1979; Walberg, 1986)<sup>1)</sup>.

그러나 정작 초등학생들의 중요한 물리적 교육환경인 미술실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실, 음악실 등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 미술실은 유명무실할 뿐 실질적인 수업은 거의 일반교실에서 행해지고 있다. 미술은 교과목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에 의해 일반 교실에서 행해지기에는 많은 제약과 무리가 따른다. 또한 일반 교실환경에서 주어지는 활동제약은 학습자를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학습자 스스

---

1) Moos, R. H. (1979). *Evaluating Educational Envrionments: procedure, measure,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San Francisisco, JosseyBass.

Walberg. H. J. (1986). Synthesis of research on teaching. In M. C. Wittrok(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 Third edition (pp.214-229). New york : Macmillian.

로 학습의 참여자가 되기보다는 소외자가 되어 미술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교육환경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한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업수행 및 학습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투입변인 중의 하나는 미술 교사가 만드는 심리적 교육환경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중요성과 역할이 밝혀져 왔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교육환경과 경험에 의해 자아개념이 형성되어진다고 본다.(Shavelson 등, 1976; Vispoel, 1995, 김용래, 1995; 김일태, 2000)<sup>2)</sup>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교육환경에 의한 미술활동경험과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미술활동은 학습자 자신이 계획을 세워야하고, 수행해야 하며, 종종 결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긴장 속에서 오랜 동안 창의적인 노력을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어려운 일을 회피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한다면 창작활동은 소극적이 되고, 구태의연해지며, 완성이 어렵게 된다. 때문에 성공적인 미술경험은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하는 ‘성취동기’, 미술활동에 탁월성을 드러내거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투자하려는 ‘학습 흥미’에 의해 의미 있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정의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그리고 학습흥미가 교육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를 연구변인으로 선택하여 이들 변인이 교육환경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네 변인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2) Shavelson, R.J., Hubner, J.J., Stanton, G.C.(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 Research*, 46, 407-441.

Vispoel, J.H.(1973). The relationships of self-concept and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6, 378-381.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은 미술수업에 대한 교수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와 행동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교육환경의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점과 미술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가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창의적인 미술활동은 학습자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욕구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Bandura<sup>3)</sup>는 창의적 글쓰기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창조적인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숙달 경험을 체득하게 돕는다고 설명하였다.

미술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이성도·김혜숙, 2003; 방정희, 2005; 이용남, 2007; 이정애, 1995 등)<sup>4)</sup>.

미술교육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는 미비하나, 신체적 체력이 경쟁적인 상황에서 자기효능감에 따라 변화한다는 Weinberg, Gould와

---

3) Bandura, A.(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4) 이성도, 김혜숙(2003). 미술표현활동과 교실환경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총론, 제 16집. 한국미술교육학회.

방정희(2005). 미술과의 심리적 교육환경이 자기 효능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 3-6학년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용남(2007). 교육환경으로서의 인간의 심리적 특성. 『교육원리연구』, 12(2), pp.1-20.

이정애(1995). 미술교육향상을 위한 교육환경의 실태조사 연구:경기내 중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8.

Jackson의 1979년 연구와 창의적 글쓰기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Bandura(1997)의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 뿐 아니라 예술 영역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

자기효능감이 수행자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Bandura(1997)의 견해 및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받는 성취동기가 또한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선행연구들은 미술과의 교육환경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 그리고 학습흥미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미술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그리고 학습흥미의 관계를 파악하는 간접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교육환경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미술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그리고 학습흥미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가질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환경이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미술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 그리고 학습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학습자의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라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은 학습자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미술교과에 더 높은 흥미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가 사춘기를 기점으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성별의 차이도 나타나서 여학생들은 미술표현의 흥미를 비교적 유지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보다 활동적인 교과목으로 흥미를 옮겨간다는 것이 통념적인 이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여 간의 차이를 경험적 연구로 확인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미술교과에 대한 남녀 학습자 특성을 이해하기위해 성별에 따른 분석은 의의

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학습흥미’는 학교시설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학습흥미가, 1) 미술실이 없이 시설이 열악한 학교, 2) 미술실이 있으나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는 학교, 3) 최신시설로 지어진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으로 분석하였다.

**[가설 3]** ‘교육환경’에 따라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간에 의미 있는 상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교육환경’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밝히는 것은 학습자의 미술교수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할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 간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학습자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지도방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설 4]** ‘교육환경’의 하위요인들과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간에는 의미 있는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영향력 검증에 사용되는 회귀분석은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기초로 하므로 교육환경이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교육환경이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미술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 그리고 흥미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기여도를 검증하기 위한 설문 조사방법을 이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제한점을 둔다.

첫째, 교육환경 및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 흥미에 사용된 검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를 사용했을 뿐 준거타당도를 추정하지 않고 사용했다.

둘째, 표집대상 초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중 물리적 교육환경에 따라(미술실이 없고 환경이 열악한 곳, 미술실이 있으나 사용이 잘되지 않는 곳, 최신시설의 미술실을 갖춘 곳) 임의로 3곳을 선정하여 표집하였고, 초등학교 4-6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모든 초등학교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셋째,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 학습흥미는 가정, 사회, 경제적, 배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모든 외적 변인을 통제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연구변인인 미술자기효능감은 아직 그 의미가 일반화되지 않은 가설적 구인이므로, 앞으로 관련 연구들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개념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 중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학습흥미만을 연구변인으로 한정하였다.

## 4. 용어정리

### ① 교육환경

교육환경은 아동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교육적 제반구성을 말한다. 교육환경은 심리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종신(1993)은 교육환경을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 ②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지정된 유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행동과정을 잘 조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판단으로 정의된다(Bandura, 1986: 391)<sup>5)</sup>.

### ③ 성취동기

Murry에 의해 1938년 처음 소개된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는 이후 McDlelland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라는 개념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주로 '어떤 어려운 과제를 성취하고자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이해되는 성취동기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교육심리학에서 학습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다.

### ④ 흥미(interest)

흥미란 어떤 활동에 대한 관심 또는 어떤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전용오, 2000)<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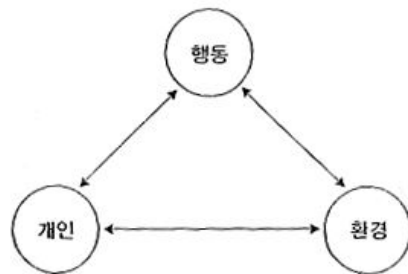
---

5)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6) 전용오(2000). 대학상담에서 상담자-내담자 동맹관계와 상담성과 간의 연계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II. 이론적 배경

사회인지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내부의 힘이나 외적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종되는 것이 아니다. Bandura는 인간 기능에 대한 기본모델로 삼자상호작용론(triadic reciprocity)을 제시하고 있다(그림1). 즉, 인간은 개인 자신, 자신의 행동, 환경 등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해 나간다<sup>7)</sup>. 이 세 가지 관계 안에서 개인요인, 행위요인, 환경요인 등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하고<sup>8)</sup>, 학습상황에 따라 세 요인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sup>9)</sup>.



[그림 II-1] Bandura의 삼자상호작용론 모델(Bandura, 1986)

미적 체험을 통하여 전인적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미술교육 또한 Bandura의 삼자상호작용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을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해 나간다. 미술교육은 한 인간이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며 미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즉, 학습자는 미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개인을 단련시키고, 이 단련은 체험의 표현

7) 김아영(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론과 현장연구, 학지사. p.19-63.

8)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9) Zimmerman, B. J.(1989). A social cognitive view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81(3). 329-339.

활동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행동은 다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미적 자산이 되어 상호작용하게 된다. 또한, 학습자는 학습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환경을 통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학습자의 행동, 즉 미적 활동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인간의 미적 능력의 발달을 가하고, 예술의 교육적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미술교육의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술 교육환경요인을 바탕으로 개인요인인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학습흥미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 1. 교육환경

### 1-1 환경

환경은 개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과 내적요인의 총체로서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여기서 물리적 환경이란 지리적·생태적환경 등 유형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사회적 환경이란 심리적·행동적 환경 등 무형적인 환경을 의미한다<sup>10)</sup>.

환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체제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즉, 환경은 어떤 체제와의 관계에서 규정될 수 있다.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환경의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체제와 환경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해야하며, 이 때 환경(environment)이라고 하는 개념은 환경이라는 현상을 객체로 두고 이에 대비되는 주체적 실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

1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198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p. 638.

환경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정원식<sup>11)</sup>은 환경이 유기체에서 작용하는 영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즉, 환경이 유기체에서 긍정적이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교육적 환경, 교육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 중립적인 경우를 무교육적 환경, 그리고 명백히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비교육적인 환경이라 부른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교육 환경은 바로 교육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Bloom<sup>12)</sup>은 환경을 "개인에게 부딪치는 조건, 힘 및 외적 자극(the conditions, forces and external stimulation which impinge upon the individual)"이라고 정의하여 개인의 외적인 물리적, 심리적 조건의 전체를 환경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점을 달리하여 황정규<sup>13)</sup>는 다음 세 가지 환경관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환경이란 모두 의미 있고 선하며 환경에 의해 모든 인간의 변화가 초래된다고 보는 환경결정론의 입장, 둘째는 환경이란 인간을 오히려 악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원천이라는 환경 공해론의 입장이며, 셋째는 환경이란 인간이 어떤 의미로 흡수, 동화, 배출하느냐의 과정에 따라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환경상호작용론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혼합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이란 그것 자체로서의 실체가 의미 있기 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 의미를 교육적 상호작용의 가치로 전화시키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인식방향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11) 정원식(1976). 교육환경론. 서울 : 교육출판사. p. 88-89.

12) Bloom, B.S. (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Y : John Wiley & Inc

13) 황정규(1998).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 1-2 교육환경

이종신<sup>14)</sup>은 교육환경은 교육의 중심이 되는 학습자의 교육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면서 학습자 밖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교육환경에는 교육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비교육적인 것 때로는 반교육적인 요소도 환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원식(1976)은 “교육환경이란 개인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 및 자극의 개적 또는 종합적인 구조와 작용”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할 때, 교육환경은 학습자의 교육적인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면서 학습자 밖에 존재하는 외적인 모든 것으로, 학습자의 밖에 있는 모든 교육적 혹은 비교육적인, 때로는 반교육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외적인 조건, 상황, 자극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환경을 기능적으로 파악할 때, 그 기능적인 작용으로서 긍정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작용까지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교육환경을 생활의 장에 따라 분류하면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 환경으로 구분되어 진다. 또한 이들 교육환경들은 각각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이라는 하위 환경으로 다시 구분된다. 물리적 환경이 일종의 가시적이고 유기적인 특성을 갖는다면 심리적 환경은 이와는 반대로 비가시적 비유형적인 특성을 갖는다. 하나의 예를 들면, 학교환경은 미술실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교사 또는 급우들 간의 유대관계와 같은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된다.

이종신(1993)은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표1>에서와 같이 교육환경은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우 의미 있는 심리적

---

14) 이종신(1993). 비인간적인 교육환경. 교육학연구 제 31권 제2호, p. 105.

환경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별인 물리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환경요소는 한 환경에 섞여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표Ⅱ-1> 교육환경의 영역과 작용(이종신, 1993)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사회 환경
물리적 환경	학습조건	학교교육여건	사회교육시설 생태적환경/주변환경
심리적 환경	분위기	학교풍토/분위기	사회풍토/분위기

교육은 인간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교육환경은 인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자, 환경, 행동은 각각의 양방향적인 이원적 결합이 아니라 삼원적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한다고 본다. 즉, 환경, 개인,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의 과정에서 각각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up>15)</sup>. 이와 같이 교육환경은 학습자와 행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중요한 변수이며, 학교에서의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환경까지 포함하는데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환경은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1) 가정의 교육환경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운명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출발점이며 최초로 사회생활을 이루는 장을 말한다. 가정의 교육환경은 크게 가정의 결손상태, 거주지의 위치와 생태적 환경, 가정의 경제적 지위, 가정의 문화적 교육시설 등 물리적 교육환경과 부모의 교육방법, 문화적 환경,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 심리적 교육환경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가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가정은

15) Woolfork, A. E. (1995). *Educational psychology*. Needham Heights M A: A Simon & Schuster Co.

인간 최초의 교육의 장으로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학습하는 장소이며, 부모, 형제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육구충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개인의 독자적인 자아개념이나 성격특성이 형성되고 확립되어지는 기본적인 환경이다. 그러므로 가정환경은 유아기부터 아동기와 사춘기를 거쳐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sup>16)</sup>.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정의 교육환경은 그 어느 환경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환경과의 접촉이 시간적으로 보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환경을 구성하므로 가정환경의 교육적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 2) 학교의 교육환경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생활의 장으로서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교수하는 곳이다. 학교의 교육환경의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다.

사실 학교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학교의 여러 가지 내적요인에 관하여 실증적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왔다. 물리적 환경으로는 학교의 교육용 교육시설(학급교실, 특별교실 등)과 학교의 생활여건을 구성하는 시설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시설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에 크게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환경의 요소, 심리적 환경으로는 학교의 조직형태, 교사, 그리고 학교의 풍토 등을 들 수 있다. (이종신, 1993 재인용).

이러한 학교의 교육환경 중에서도 미술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미술 학습자료와 내용, 시설환경 등으로부터 인지되는 심리적 학습 풍토나 분위기 등이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행동변화에 영향을 준다<sup>17)</sup>. 이와

16) 이상욱, 김운삼(2001).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진리논단, -(6), 635-663.

17) Moos, R. H. (1979). *Evaluating Educational Envrionments: procedure, measure,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San Francisisco, JosseyBass.

Walberg. H. J. (1986). Synthesis of research on teaching. In M. C. Wittrok (Ed.), *Handbook of*

같이 교수학습의 과정이 주로 일어나는 학교의 교육환경은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매우 중요하다.

### 3) 사회의 교육환경

모든 사회에는 그 나름대로 고유한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회의 양식과 특징을 규정지어 준다. 이러한 사회는 아동의 교육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환경은 물리적 환경으로서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여가 및 문화시설, 대중매체(인쇄물과 영상매체), 도시의 생태적 환경을 말하고, 심리적 환경으로서 사회 심리적 풍토나 분위기를 말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주변 사회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변 사회를 내면적으로 인식하는 체험을 가지게 된다. 미술교육은 풍부한 정서를 육성하여 한 인간이 생애에 걸쳐 계속해서 스스로 학습하며 미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므로 사회에서의 체험이 표현 활동을 통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환경의 미적 경험은 개인의 미적능력의 발달을 가하기 때문에 예술의 교육적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미술교육의 사회적 교육환경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은 교육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을 말하며 교육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본 연구자는 학교와 가정을 학습자의 학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장소로 보고, 건물이나 교재와 같은 학습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교육환경과 풍토 혹은 분위기 등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환경에 대하여 언급 하고자 한다.

---

*research on teaching* : Third edition (pp.214-229). New york : Macmillian

### 1-3. 교육환경의 중요성

B.Bloom은 환경이 인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정원식, 1975, 재인용)<sup>18)</sup>.

1) 환경은 인간의 특성에 일어나는 변화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해주는 요인이다. 어떤 환경적 요인은 학교 학습에 지장을 가져오고 또 어떤 환경적 요인은 학교 학습을 강화시키거나 증진시킨다.

2) 환경은 인간발달과정 중에서 가장 급격한 발달을 가져오는 시기에 더욱 큰 환경을 미치며,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20세 이상이 되면 환경에 의한 지능 변화는 저하된다.

3) 인간에게 주어지는 환경 중에서 초기의 환경은 보다 큰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중요하다.

4) 환경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판별적인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환경 중에서는 그것이 지니는 강력한 힘 때문에 그 환경에 접하고 있는 모든 개인을 동등하게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B.Bloom이 언급하는 교육환경의 중요성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 대부분이 어린 시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 등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선천적으로 모든 사람은 특정한 재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또한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재능은 타고남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단한 노력이나 부모의 헌신, 적절한 후원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사의 지도가 있어야만 잘 발휘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타고난 유전적 조건과 그에게 주어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장하고 발달하므로, 인간형성 과정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중요하며 크

18) 정원식(1975). 교육환경론, 서울출판사. pp.33-37.

다고 볼 수 있다.

정원식<sup>19)</sup>은 교육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의 구성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은 결국 환경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심리적 환경도 교육환경의 조건이 된다. 교육환경의 개선은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맥을 함께 하는 것 뿐 아니라 풍토, 분위기의 현대화와 맥을 함께하는 것이며, 교육환경의 역할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통해 학생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미술교육은 미술을 통하여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자기만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존중해주고 잠재적인 감성을 최대한 표출하여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적인 조형 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교육환경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 (1) 물리적 교육환경

### ① 물리적 교육환경의 개념

물리적 환경은 사회·심리·생물·물리적 요소 등으로 구성된 총체적인 환경에서 사회·심리·생물을 제외한 물리적 상태나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기체 주변의 물리적 공간총체라 하겠다.

Mason, J. 외 2인<sup>20)</sup>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는 환경은 첫째는 유기체에서

---

19) 정원식 외 2인 공저. (1994). 교육심리학, 교육출판사, P.125.

20) Mason, J., and McKinney, J. D., and Clifford. M., (1957). *Relationship between Classroom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67, No. 2, pp198~203.

밀접하게 관련되는 물리적 현상, 둘째는 물리적 현상과 유기체 사이에 관련되는 경험현상으로 구별되는데, 이는 순수한 물리적 환경 변인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물리적 환경상태의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심리·생물적 변인과 함께 물리적 환경 변인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Koffka<sup>21)</sup>는 환경을 지리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 2가지로 분류한다. 전자는 유기체 주변의 물리적 공간총체를, 후자는 유기체가 경험하는 사회·심리적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Koffka가 말하는 지리적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김안제<sup>22)</sup>는 광의의 환경학적 관점에서 환경을 사회적인 것과 물리적인 환경으로 구별하고, 물리적 환경을 다시 자연환경과 인공 환경으로 분류했다.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인공 환경은 인간에게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제약한다. 즉, 인공 환경도 인간의 의식, 태도,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검토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물리적 환경이란 첫째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으며 둘째, 형태가 다양하고 가시적이거나 가청적이며, 셋째 양적 측정을 할 수 있고, 넷째 사실적 의미 외에도 동기유발적인 상징성을 포함하며, 다섯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섯째 인간 행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물리적 환경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이로 유추해보면 학교의 물리적 교육환경은 학교 건물, 설비, 교구, 교재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포함하며 교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21) Koffka, K. (1935).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Company.

22) 김안제(1977). 공해와 질병. 서울 최신의학사.

## ② 물리적 교육환경의 구성요소

물리적 환경요소들은 대부분 인간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김지영<sup>23)</sup>에 따르면 학교 환경의 물리적 구성요소는 학자나 연구한 사람에 따라 제각기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구성요소는 학교라는 제한된 범위나 학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학교 주변의 상황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학교의 물리적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실내 환경구성 요소로서 책상과 의자의 크기와 구조 및 배치상태, 벽면의 색채 및 벽면에 부착된 환경처리 상태, 비품의 정리 상태 및 효율성(실험도구, 학습도구 등), 유리창의 크기, 모양, 안정성 및 편리성 정도, 칠판의 색채와 크기 및 높이, 실내의 통풍, 온도, 습도, 채광, 교실면적, 학생 일인당 단위면적, 책상과 의자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활동면적, 교실 자체의 노후화 문제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교실의 종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아동의 생활에 영향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는 실외(학교 내)의 환경으로서 운동장(넓이, 표면상태 등), 실외 급수 시설, 계단에 관련된 사항, 화단(온실, 온상 포함), 설비(운동설비, 오락설비 등), 화장실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학교 주변의 환경으로서 지역적 특성(공장지대, 교통관계, 상가, 고층 건물의 인접지역 등)에 따라 굉음상태, 공기오염상태 등과 자연조건(날씨, 기상 등)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물리적 환경요소들은 학생들이 생활할 때, 안전성, 편리성 정도, 실용적인 효율성 등과 밀접하게 관계되며, 생리적 욕구충족이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정복, 1980). 구체적으로는 위생, 신체적인

23) 김지영(2001). 초등학교 물리적 교육환경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 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교 교육방법 및 공학전공, 석사논문, p.9-12

활동, 정신적인 활동, 정서변화 등에 영향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의 물리적 교육환경은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공간 및 공간의 물리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리적 변인들은 단순한 사실적 기억의 대상이 되거나, 단편적이고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 환경에서 생활하며 참여하는 아동들이 지각하고 수용하는 태세에 따라 함축성 있고, 상징적인 의미까지 갖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색조와 조명이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미학적인 실내분위기의 효과, 학교의 규모에 따른 2부제 수업, 교실 공간의 크기, 좌석배치상태, 책·결상의 크기 등이 비의도적인 교육과정, 곧 잠재적 교육과정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김중서, 1975)등은 학교의 물리적 변인의 차이에 따른 정의적 행동특성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물리적 교육환경 중에서 교구·설비는 교수-학습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상의 세 가지 접근을 기준으로 차경수<sup>24)</sup>와 황정규<sup>25)</sup>의 분류를 참조 및 적용하여 구성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구성요인은 기초적 생활 여건으로 학급규모, 학교규모, 급식·급수시설, 운동장면적, 체육시설, 채광·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방음, 화장실, 옥외 휴식공간을 내포하고, 둘째 구성요인은 현대적 교육시설 여건으로 과학실, 도서실, 음악실·미술실·실습실, 어학실, 멀티미디어실(컴퓨터실, 방송실, 양호실, 상담실, 다용도 학습 공간, 편의시설을 내포하고, 셋째 구성요인은 학교조명 및 문화 공간 여건으로 화단·녹지 공간, 건물의 아름다움을 들 수 있고, 넷째 구성요인은 교실수업 여건으로 칠판, 교과서, 책·결상, 학급 시청각기자재·컴퓨터가 포함되며, 다섯째 구성요인은 교육환경 활동의 편리성으로 분류

24) 차경수(1987). 교육환경의 실태와 개선방향. 교육환경의 개선방향. 서울 : 교육개혁심의회.

25) 황정규(1998).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하여 정하였다.

미술교과 수업이 학교 교육에서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물리적 환경인 학교규모에 맞는 미술실, 미술실의 시설·설비와 기자재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저자는 교육현장에서의 미술과 수업에 대한 교육여건과 환경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③ 미술실의 물리적 교육환경

미술교육은 미술을 통해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자기만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존중해 주고 잠재적인 감성을 최대한 표출하여 상상력과 창조적인 조형 활동으로 정서를 순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미술교육의 환경이다. 미술과 수업에 있어서 수업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교실환경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술교과 수업은 실제로 교실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목표에 제시된 내용들을 초등학생들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술교육 실기환경의 첫째 조건은 충분한 교재교구의 준비와 그것들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술실은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편하고 재미있는 작업공간과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의 장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표현과 창작의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C. D. Gaitskell<sup>26)</sup>은 미술실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미술실은 학습에 필요한 교구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부피가 큰 교구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미술실은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자르거나 두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작품을 건조, 보관 할 수 있는 시설과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미술실은 교구와 설비들을 편리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학교 건물의 1층 전용 출입구 가까이 있어야 한다.

⑤ 미술실은 바닥 길이가 최소 9m에서 18정도로 넓어야 하며 바닥은 두꺼운 리놀륨 또는 고무타일이 깔려 있어야 한다.

⑥ 미술실에 있어 빛은 가장 중요하다. 형광등이 권장되며 중요한 전시작품을 위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빛은 천장에서 내려 비치도록 한다.

⑦ 미술실 벽면에 사용하는 색채는 유의해서 골라야 한다. 벽과 천장의 색으로 옅은 회색과 같은 중간색이 권장된다.

L. H. Chapman<sup>27)</sup>은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위해 충분한 공간과 교구 확보를 들고 있는데 교사들이 겪게 되는 공간 확보 문제를 위해 교육 보조 기자재 이동식 보관대를 권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미술교육을 위하여 감상학습용 미술작품과 미술사 슬라이드, TV 등의 시청각 기자재 그리고 각종 복사물, 사진, 차트와 같은 프린트 매체가 준비되어야 하며 질적으로 우수한 교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미술교과 교육에서 강조되는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이 적절히 이루어지

26) Gaitskell D. Charles (1982), 『Children and Their Art』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Atranta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p. 140-145.

27) Laura H. Chapman (1978), 『Approaches to Art in Education』 (New York, San Diego, Chicago, San Francisco, Atranta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p. 409.

고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과 장비, 기자재 등을 갖춘 미술실의 물리적 환경이 각 학교마다 구비되어져야 한다. 미술실에는 기본적으로 개수대와 정리대, 건조대, 작업대, 환풍기, 사물함, 가마, 프레스기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학습활동에 필요한 컴퓨터와 실물 화상기, 프로젝터, 오디오, 빔 프로젝터, OHP, 프로젝션 TV, 비디오카메라(캠코더) 등의 기자재와 자료, 화집, 포스터, 비디오테이프 등의 학습 자료가 비치되어야 한다<sup>28)</sup>. 계속적으로 미술교과 교육과정이 바뀌어 오면서, 다양한 표현과 매체활용에 대한 내용들은 꾸준히 강화되고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미술교과의 교육환경 개선은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맥을 함께하지 못하였고 미술실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지나치게 간과되어 왔다. 물리적 교육환경은 학생 개인에게 흥미 있고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미술표현활동에서 활동공간의 부족함과 폐쇄성은 학생들의 학습능률을 저하하고 효율성을 반감시키며, 제 7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제시된 다양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환경의 개선은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맥을 함께하는 것이며, 교육환경의 역할을 보다 나은 물리적 환경을 통하여 학생 개인에게는 흥미 있고 즐거운 수업으로 교사에게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하자는데 있다.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미술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유인요인으로 작용하여 의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수업의 진지성을 높이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술실은 학생들이 과거에 만들었거나 현재 제작한 표현물을 보관, 게시하기에 적절하며 학생들은 보다 많은 작품을 감상하여 창의적인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미술실은 학생에게 재미있고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움의 장소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다

28) 이성도 · 김혜숙(2003). 미술표현활동과 교실환경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총론, 제 16집. 한국미술교육학회.

양한 조형표현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표현의 기쁨과 인격형성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하는 바처럼 미술을 학습하는 교실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지나치게 간과되어 왔다. 이로 인한 학습의 부작용, 미술수업에 대한 흥미 및 자기효능감의 상실을 유발한다고 보고, 미술실의 교육환경이 미술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 심리적 교육환경

### ① 심리적 교육환경의 개념

일종의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물리적 환경과는 달리 비가시적이고 비유형적인 심리적 환경은 주로 학생과 외부와의 인간관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심리적 환경의 요소는 학급내의 교육적 분위기,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부모와 학생과의 관계와 지도방법, 그 외의 외부적인 심리적 영향력 등이 있다<sup>29)</sup>.

장상호<sup>30)</sup>는 한 개인 내의 심리적인 상태 자체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봤다. 또한 심리적인 인간상과 교육적 인간상은 여러 면에서 보안과 상충이 가능하다고 보고 심리적 교육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현전의 교육학에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은 대체로 인지적, 정의적, 운동적 특성으로 분류된다. 정의적 특성은 지적 특성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여 학습자의 수행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적 학습에서도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

29) 이상섭(1993). 평생교육체제를 지향하는 교육환경론. 형설 출판사.

30) 장상호(1997), 교육의 재개념화에 따른 10가지 새로운 탐구영역. 『교육원리연구』, 2, p. 111-212.

이 학업성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는 학업 성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일차적인 관심을 갖는다. B.Bloom<sup>31)</sup>에 의하면 학생의 인지적 특성은 학업성취에 대략 50%, 그리고 정의적 특성은 대략 2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미술과 같은 예술 영역 교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나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경우, 모두 그 기저에 상정하고 있는 교육이란 대체로 학교에서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학교 태(schooling)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학교란 가정, 학원, 회사, 공장 등과 같은 단지 생활공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생활공간으로서의 학교에서는 교육도 일어나지만 그 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 그리고 교육 또한 가정, 학원, 회사, 공장 등 학교 밖 다른 생활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태와는 다른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교육을 탐구 할 필요가 있다<sup>32)</sup>.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환경에 대한 발상도 전화해 볼 필요가 있다(장상호, 1997). 교육환경을 학교 태를 중심으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공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교육 환경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교육이 전경이 되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물러나게 된다.

## ② 심리적 교육환경의 구성요소

미술교과의 심리적 교육환경은 주로 학생과 외부와의 인간관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학급내의 교육적 분위기,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부모와 학

31) Bloom, B. S. (197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 McGraw-Hill.

32) 장상호(1991). 교육학 탐구영역의 개개념화. 『교육학연구』, 91-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생과의 관계와 지도 방법, 그 외의 외부적인 심리적 영향력 등을 포함한다<sup>33)</sup>.

미술교육에 있어서 학습의 과정이나 결과에 작용하는 심리적 환경은 학습자 개인의 인지적 학습결과나 정의적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심리적 환경에 근거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관계와 수업행위로 인하여 나타나는 교사의 행동적 특성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선행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물들이 포함된다.

먼저, 심리적 환경특성인 학습풍토나 학습 분위기 등의 관점으로부터 교사에 의한 학습 환경을 조사한 연구로 Coleman(1968)은 교사의 질이나 교사의 통제는 학급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교사의 지도 특성 및 교수 유형에 관한 연구로 Galloway는 교사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른 교사 행동을 분석, Flanders의 비지시적 및 지시적 교수에 관한 수업형태의 분류, Anderson과 Withall은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 분위기 연구, Lewin은 교사가 민주적, 권위적, 방임적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했다<sup>34)</sup>. 교사에 의한 심리적 학습 환경은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인간적 분위기의 제공자로서 교사지원, 교사에 의한 수업의 내용이나 행위 등의 통제,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수행에 대한 교사의 기대 효과 등이 해당된다<sup>35)</sup>.

둘째, 교사의 수업행동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심리적 학습 환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교의 학습 환경 중에서 대부분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교사가 어떻게 행동하고 가르치는가에 관련된 교사의 수업행동 중에서도 교사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Medley(1982)는 교사 효율성 구조를 교사 특성, 교사자질, 교사행동, 학생경험, 학습결과, 교사훈련, 외적상황, 내적상황, 학

33) 이상섭(1993). 『평생교육체제를 지향하는 교육환경론』. 형설출판사.

34) 김종서, 김영찬(1983). 수업형태 분석법, 교육과학사.

35) Brophy, J. & Good, T.(1986). *Teacher Behavior and Student Achievement*. In M. C. Wittrock(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Third edition*(pp. 328-375). New York: Macmillan.

생개인특성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효율성 구조 중에서도 교사특성에는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신념, 지능, 학생에 대한 흥미, 인성 등이 있다고 한다. 교사자질은 교사로서 가져야 할 지식, 신념, 능력 등으로 구분하고, 교사행동은 학생을 가르칠 때 보이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Borich(1988)는 훌륭한 교사에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인성, 태도, 경험, 적성·성취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36)</sup>.

박용헌(1968)은 교사자질을 진단하는 요인으로 전문적 측면, 학급분위기 조성 측면, 교사기능의 퍼스내리티적 측면, 교사 기능의 적응적 측면 등으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변인들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다. Gage(1963)의 교사 효율성 연구 체제에 따르면, 교실 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행동은 교사의 인성, 교사의 훈련경험, 환경 변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교사와 학생의 행동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Fuans(1960)은 교사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교실내의 수업행동을 관찰 연구, 애정과 이해, 책임과 체계성, 정열과 격려 등의 유형으로 세 가지 교수행위로 나누었다.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하는 교수행동은 단순한 교수기술만 아니다. 여기에는 교사의 인성특성, 태도, 가치관, 정서, 성장배경, 경험, 교육과 훈련 등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sup>37)</sup>.

이와 같이 심리적 요인은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교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사는 개인의 생리적 측면이나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동구조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

36) 이재천, 김범기(1998). 과학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조성되는 심리적 학습환경측정 도구개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pp.313-325.

37) 권이중, 권재술, 최수영, 권낙원, 허정무(1992). 교직적성 검사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 ③ 미술교과와 심리적 교육환경

비가시적인 심리적 교육환경은 학생들에게 미술과 학습동기 및 성취감에 영향을 준다. 미술교과 수업을 통해 배우는 지식들이 어떠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지 않으면 학생스스로의 정서순화나 감정 교류, 자아만족, 자아성취 등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로 인한 학습동기와 성취감 저하로, 학생들은 건성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며, 표현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지식이 구축되기 보다는 파편화된 지식이 형성되게 된다. 이런 지식은 구체성을 상실함으로써 자기 표현활동에도 충분한 기초지식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또한 미술교과의 부정적인 심리적 교육환경으로, 많은 학부모들은 일류대학이라는 목표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맞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교과들의 특성과 목적을 무시한 채,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만을 보려고 한다. 이에 따라 보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워야 하는 미술과목 조차 표현과 기능 중심적이며, 암기 중심적인 과목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학교에까지 과급되고 있으며, 우리의 미술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술과는 다른 교과와 다른, 독특한 본래의 목적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바람직한 심리적 환경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술교과 교수-학습은 교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주도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주류를 이룬다(이성도, 1999: 232)<sup>38)</sup>.

미술교육은 조형 활동을 통해 미의식을 심화하고 조형 활동에 필요한 기본기법을 익혀 창조적 표현능력을 신장시킨다. 미술은 수동적인 수용활동이 아

38) 이성도(1999). 미술과 수업에서 교육매체 활용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원교육, 제15권. 228-240.

닌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표현 활동으로 미술 활동 그 자체가 창의성을 지니고 있다.

학습자 주도의 학습은 아무런 자극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적체험을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사의 적절한 수업방법이 어우러지면서 학습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는데서 시작된다. 학습활동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학생자신이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 것으로, 학생 스스로 보다 개성적이고 창의적 조형언어를 형성화시키거나 조형성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풍부해야 한다(이성도, 1999). 학습자들은 같은 대상을 놓고서 각자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표현한다. 재료의 선택, 기법의 선택, 구도를 잡는 활동에서도 학습자의 개성은 드러나고 표현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자유롭고 모든 생각을 존중하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미술시간은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토론, 발표를 보장하고, 학습자들의 자유롭고 기발한 생각들을 존중하며, 사고와 표현과 토론이 열려 있는 공간을 말한다<sup>39)</sup>.

그러므로 심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술교사와 부모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학습자들의 생각과 표현에 보다 수용적이고 애정적이어야 한다. 미술은 하나의 기준으로 작품을 평가하고 수치화 할 수 있는 교과가 아니므로 학습자의 독특한 작품들에 대해 하나하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서술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창의성과 개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계발되어질 것이다.

둘째, 미술교과는 학습자의 자기 자아 표현의 장이 되는 학문이다. 학습자들은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들 내면에 있는 자아를 표현한다. 이는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자아가 미술이라는 표현 매체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다. 미술 치료가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

39) 이규선 외(2001). 미술교육학.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교육과학사.

술 활동 시 자아가 표출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가 잘 표출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은 바로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sup>40)</sup>에서는 2004년 미술교육논총을 통해 개인의 맥락이 중시되는 미술교육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학습자들을 한 덩어리의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개인의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감쌀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은 자기 자아의 표출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환경,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들과 의사소통을 한다(이규선 외 2001). 아동 미술 치료를 보면 그림을 통해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그려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에게 소외된 아동은 그림에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거나, 멀리 조그마하게 그려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나무를 그리는 기법, 선의 굵기, 해의 표현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처한 환경에 대해 무의식 적으로 표현해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림은 각 학습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많은 부모와 미술 교사들은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간과한 채, 어떠한 획일적인 결과만을 원한다.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그림들은 부모와 미술교사에게 큰 의미를 가질지는 모르나, 학습자에게 그러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학습자는 더 이상 미술 활동을 통해 자아를 표현해 내지 못할 수 있다. 학습자가 어떠한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에 손을 대는 부모를 자주 보게 된다. 부모는 꼼꼼하지 않은 자식을 돕는다는 생각일 것이다. 또한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려주는 것이 자식을 돕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환경들은 아동이 더 이상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방법과 의도를 표현해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때문에 부모와 교사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습

40)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004).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도서출판 애경.

자가 표현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려하여 존중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격려하고 이해하며 아이 또는 학습자가 이러한 미술 활동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미술교과는 즐거움의 학문이다. 학습자가 미술활동을 하면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미술의 본질이다. 미술 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속으로 깊이 들어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표출되지 못하는 감정들이 표출되면서 자아의 만족을 느낌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활동에 일등이 되어야 한다는 학습의 부정적인 심리적 환경으로 인해 비교, 경쟁의식이 생기고 요구하는 형식에 몸을 맞추게 되어 더 이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술교과에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흥미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학습자가 미술을 통한 자기 표현의 즐거움을 누릴 때 교사는 더욱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강화를 시켜주어야 한다. 이는 적절한 피드백과 학급 동료들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 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관계는 좋은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 학습자의 미술에 대한 흥미, 자기효능감,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넷째, 미술은 감성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학문은 이성을 강조한다. 또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성을 강조한 학문에 집중한다. 비록 그 학문이 적성에 맞지 않고 재미가 없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이성을 강조하는 학문의 홍수 속에서 미술 교과도 좋은 점수를 위해 이성을 강조하며 교육되어지기를 강요받는다. 어떠한 틀에 맞추어져야 하고, 어떠한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이성적 미술 교육은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만들고 더 이상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지만 미술은 감성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미술은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정서와 느낌의 학문이다. 미술은 이성의 도움을 받아 감성을 표현하는 매체이다. 이러한 미술교과를 특성을 잘 파악하고, 학습자들을 바람직하게 지도하기 위해 교사는 테크닉을 강조하지 않고 학습자 내면의 자아를 이끌어 내어 함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바람직한 비평, 감상 교육은 미술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 긍정적인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흥미, 동기를 증진시키도록 돕는다.

미술교과를 심리적 교육환경은 다른 상황에서 눈을 돌려 미술교과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라보았을 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학습자들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성취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문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심리적 교육 환경이다. 이러한 심리적 교육환경은 교사가 학습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개개인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적절한 피드백과 다른 학습자간의 교류를 통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술교과를 긍정적인 심리교육 환경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 흥미를 향상시킨다.

## 2. 자기효능감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고 진단해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은 크게 행동의 원인을 유기체 외의 환경적 요인에 두는 행동주의 이론과 유기체 내에 두는 인지이론으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관점만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다소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행동주의 입장과 인지론적 입장을 조화·적용하여 인간의 행동방식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결정 요인으로 설명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에 의해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는데, 이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 자기존중, 지각된 능력,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자신감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거나 회피하는데, 이는 효능감의 정도가 미래행위의 정도를 예언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교육적 역할도 가지고 있다. 미술교육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자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미술과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학습자는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기꺼이 투입할 것이고 그 결과로 자발적 학습자(self-regulated learner)가 될 것이다. 학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학습자는 미술 과제를 해결하기를 피하거나 주저할 것이다. 미술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이미지형성으로 귀결은 미술과의 교육에서도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 2-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이란 Bandura(1997)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인지이론을 제안하면서 내놓은 개념으로<sup>41)</sup>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

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자기 효능신념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정신적 건강의 기초가 되며 개인적 성취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개념이다<sup>42)</sup>.

자기효능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Bandura(1997: 1986)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수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Gist와 Mitchell<sup>43)</sup>는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Eden와 Aviram<sup>44)</sup>는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정서적 근원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Wood, Mento와 Locke(1978:채수정, 2008에서 재인용)은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써 과제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우희정(1993)은 자기효능감이란 구체적 상황에서 목표수준의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 능력의 판단 또는 기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Suhunk<sup>45)</sup>는 교육적 맥락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새로운 인지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과제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

41) Maddux, J. E. ed. (1995). *Self-Efficacy, Adaptation, and Adjust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Plenum Press,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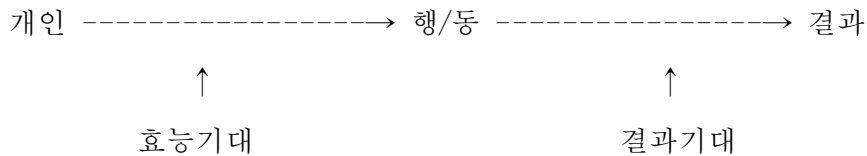
42) 안귀덕(2003). *교육환경과 자아실현*, 도서출판 원미사, P. 148.

43) Gist, M. E., & Mitchell, T. R. (1992). Self-efficacy: A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 183-211.

44) Eden, D., & Aviram, A. (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352-360.

45) Suhunk, D.(1989a).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B. J. Zinnernad, & D. Schunk(Ed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ch, and practice*(pp. 83-110). New York: Springer-Verlag.

Bandura는 자기 효능감은 결과기대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특정한 행동 후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고 효능성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수행할 행동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데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다.



[그림 II-2] 효능기대와 결과기대의 차이점(Bandura, 1977)

앞으로 수행할 결과는 행동으로부터 발생한다. 사람들의 행동방식은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결과로 결정되므로, 수행은 인과적으로 결과에 선행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과는 대부분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들의 판단에 의존된다. 몇몇 연구자(Eastman & Marzill, 1994)에 의하면, 사람들이 결과를 시각화하고, 그 상상된 결과에 의해서 자기 능력을 추론한다는 주장은 행동에서 나온 결과가 행동에 선행한다는 독특한 역행 인과체계에 대한 생각을 유발했다. 사람들은 깊은 물에 뛰어들면 익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서, 자기는 수영을 못한다고 추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수영을 못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깊은 물에 뛰어들면 자기가 익사하는 것을 시각화 할 것이다. 자기 효능감과 결과에 대한 기대의 인과적 관계는 [그림2]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수행의 유형들을 조직하고 행하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반면에 결과에 대한 기대는 그러한 수행이 산출하는 결과에 대한 판단이다<sup>46)</sup>.

Bandura(1997)는 효능기대가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고 보고 결과기대보다는 효능기대가 동기와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은 어떤 결과를 수반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 행동을 수반할 수 있는 능력에 대

46) 김의철 외 (2003).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교육과학사. p. 79-80.

하여 회의가 간다면 결과기대는 행동동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기효능감이 동기와 관련되어 성취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능력부족보다는 노력부족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는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았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 후에도 빠른 속도로 효능감을 회복한다. 반면 효능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실패를 능력부족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어서 두려움과 절망을 가지고 마치못해 그 과제수행에 임하거나 아니면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자기효능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행동을 환경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기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안귀덕, 2003).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정서적 문제나 실천 행동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교육적 유능성(educational competency)을 촉진하는 학습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여 성취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2-2. 자기효능감의 정보원

Bandura(1977)에 의하면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정보는 네 가지 주요한 정보원(Source)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수행을 관찰하고 판단함으로써, 둘째 모델이 수행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vicarious experience), 셋째 타인의 설득으로부터, 넷째 생리적 지표(심장 박동, 땀의 분비 등)를 사용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정보원을 통해서 알아낸 정보는 개인의 효능감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지적 평가를 거치게 된다. 효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은 자신이 지각하는 능력 수준, 투여한 노력 정도, 과제난이도, 상급자의 도움, 그리고 다른 상황적 요인과 성공과 실패의 형태 그리고 귀인 등을 고려한다<sup>47)</sup>. 네 가지 근원들이 독자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한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근원이 동시에 작용한다.

47) 김아영(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 : 이론과 현장연구. 학지사. p. 26-27.

Bandura는 기본적으로 자기 효능감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신의 성취에 따른 직접적인 성공경험을 말한다. 반복되는 성공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고 반복되는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성공경험으로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비슷한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까지 일반화된다. 성공 경험들은 효능감 정보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근원이다. 성공은 개인 효능감에 대한 강한 신념을 형성한다. 반면 실패는 개인 효능감을 악화시킨다. 특히 효능감이 강하게 형성되기 전에 실패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대학입시의 성공, 그리고 학부제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이 선택되었을 때, 학과에 대한 만족경험 등은 학생들에게 큰 성공 경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sup>48)</sup>.

둘째, 모델, 특히 자신과 비슷한 모델이 성취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증진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근원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수행된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과 같은 대리경험도 효능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효과적인 도구로 제공된다. 다른 사람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관찰하고 자신도 수행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모델이 그 성취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관찰하는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셋째, 사회적 설득은 언어적인 것이 주가 되는데, 권위자의 “너는 할 수 있다.”는 설득이 효능감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언어적 설득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게 설득하는 것이다. 이런 설득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다. 또한 긍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적 피드백도 설득력 있는 효능감 정보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피드백의 내용은 효능감을 깎아내릴 수도 있고, 혹은 지지할 수도 있다. 상담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치료과정이므로

48) 김의철 외(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언어적 설득의 충분한 지원체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sup>49)</sup>.

넷째, 자신의 생리적 상태에 대한 해석은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 정서적 불안상태에서는 효과적인 수행을 하지 못하여 성공경험을 할 수 없고, 자기 효능감도 감소하게 되지만 정서적 안정상태에서의 수행은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자신이 해야 할 과업을 준비하고 경험하였거나 많이 접해본 사람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인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리적 지표를 그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로 해석할 경우 효능감을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생리적 상태, 정서적 상태 자체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과정을 통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자동적으로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정보들은 개인에 의해 인지적으로 평가 받는다(Bandura, 1986). 효능감 평가는 하나의 추론 과정이다. 이 추론의 과정에서 개인은 získ된 능력, 과제곤란도, 노력의 투입량, 외부에서 도움 받은 양, 성공과 실패의 수와 형태, 모델과의 유사성, 설득자의 신뢰도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한다<sup>50)</sup>.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개인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 2-3. 자기효능감의 기능과 효과

Badura<sup>51)</sup>는 자기효능감의 기능과 효과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했다.

49) 김화영(2003) 대학생 진로결정의 흥미타협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논문. p. 23.

50) Schunk, D.(1989).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71-86.

51)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toce Hall.

첫째, 자기효능감은 행동선택에 영향을 준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연속상황 속에 있다. 여기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행동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믿는 과제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은 그 과제를 회피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과제는 기꺼이 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행동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Schunk<sup>52)</sup>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기효능감 이론이 교육적 맥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은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선택을 크게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여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학생들이 학습활동의 초기에는 노력을 강요하는 교사로 인하여 학습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효능감은 노력의 양과 지속력에 영향을 준다. 효능감 판단은 개인이 과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노력하지 않거나 쉽게 포기해 버릴 것이다. 반면, 강한 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과제를 숙달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다(Bandura & Cervone, 1983; Schunk, 1984)<sup>53)</sup>. 인지적 노력은 동기를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이다(Corno & Mandinach, 1983)<sup>54)</sup>. 학습에 대한

52) Schunk, D.(1989).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71-86.

53) Bandura, A. & Cervone, D.(1983). Self-evaluative and self-efficacy Mechanisms governing the motivational effects of good syst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17-1028.  
Schunk, D.(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48-58.

54) Corno, L. & Mandinach, E. B.(1983). Using existing classroom data to explore relationships in a theoretical model of academic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수업시간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학습 상황에서 학생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효능감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교사가 학생에게 계속 공부하도록 독려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셋째,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사고형태와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 자신을 비효능적인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결핍점을 골똘히 생각하고 집착하며 어떤 난해한 상황을 사실보다 더 과장하여 어려운 상황으로 지각한다<sup>55)</sup>. 이와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의 요구에 노력하고 주의 집중한다. 또한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인과적 사고를 하게 한다<sup>56)</sup>. 즉,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노력부족으로, 낮은 사람은 문제의 높은 난이도로 귀인 시킨다.

Bandura는 자기준거적(self-referent) 사고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간은 자기의 미래행동을 예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신의 효능감을 높게 지각한 사람은 낮게 지각한 사람과 다르게 행동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자신의 미래행동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활동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와 질을 결정하고 활동 중에 장애를 만났을 때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게 하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저항력, 준비도, 노력의 양과 질이 상승하고, 학생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경험하게 될 스트레스나 불안을 다루고 견디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sup>57)</sup>. 결국,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달성

55) Meichenbaum, D. H.(1977). *Cognitive-behavioral modification: An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Plenum.

56) Collins, J. L.(1982). Self-efficacy and ability in achievem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ERA*. NY.

57) Pajares, M.(2002). Overview of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elf-efficacy: <http://www.emory.edu/EDUCATION/eff.html>.

하는 성취수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4. 미술교과 자기효능감의 중요성

각 개인은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과제나 행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과제나 행위를 회피한다(Kear, 2000: Pajares, 2002)<sup>58)</sup>. 효능감의 정도가 미래행위의 정도를 예언 가능하도록 해주기(Holden, 1991: Zimmerman, 1995)<sup>59)</sup> 때문에 교육적 역할도 가지고 있다. Zimmerman(1995)은 동기와 성취도 영향을 미치는 효능감은 지속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신념들과는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분야에서 얻어진 효능감은 다른 영역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술교육에서 왜 효능감이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한 이유가 된다. 학습자가 자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미술과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학습자는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기꺼이 투입할 것이고 그 결과로 자발적 학습자(self-regulated learner)가 될 것이다. 학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학습자는 미술 과제를 해결하기를 피하거나 주저할 것이다.

Bandura(1986)는 강한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했다. 비록 지식이나 기술 등이 인간의 선택이나 행위의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Bandura(1986)에 의하면 사람들의 동기수준, 감정적 상태와 행위는 인간이 어떤 사실을 믿도록 만드는데 있어 진실보다 더

---

58) Kear, M.(2000). Concept analysis of self-efficacy. *Graduate Research in Nursing*: <http://graduateresearch.com/Kear.htm>.

Pajares, M.(2002). Overview of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elf-efficacy: <http://www.emory.edu/EDUCATION/eff.html>.

59) Holden, G.(1991). The related outcomes: A meta-analysis. *Social Work and Health Care*. 16, 53-93.  
Zimmerman, B. J.(1995). Self efficacy and education development. In A. Bandura(Ed.), *Self 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pp. 202-23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강하다. 즉,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가진 실제적인 지식이나 기술보다 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김의철 외, 1999; Peteson & Stunkard, 1992)<sup>60</sup>)이나 신념(Owen & Froman, 1988)<sup>61</sup>)에 관한 개념인 것이다.

높은 효능감의 수준은 어떤 행위의 욕구나 자발성을 유도하고 새로운 행위에 부수될 지도 모르는 위험성에 맞서도록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미술적 정보를 활용하는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미술에서 얻어진 자기효능감으로 다른 학습에까지 긍정적 전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효능감이 요구되고 있다. 미술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많은 노력과 지속력, 활력을 가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학습자의 사고형태와 정서적 반응에 순환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인간의 사고 또는 지식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동기가 유발되어야 하는데 이 동기적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미술수업에서도 자기효능감은 동기적 요인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초등학교에서의 경험은 중·고등학교에서의 경험보다 더 강렬하고 지속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형성된 효능감은 높은 학습 성취 형성과 관계된 것은 물론이고, 미술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이미지형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래서 효능감은 자기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미술과의 교육에서도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

---

60)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A, Bandura의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서울: 교육과학사.

Peteson, C. & Stunkard, A. J.(1992). Cognates of personal control: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explanatory styl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 111-117.

61) Owen, S. V. & Froman, R. D.(1988). Development of a college academic self-efficacy. *Reports-Research, Speeches/Meeting Papers*.

### 3. 성취동기

#### 3-1. 성취동기의 개념

동기는 주로 흥미·욕구·포부 등과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많은 심리학 및 교육학 학자들은 동기를 개인의 행동을 발생시키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의 수준이나 강도를 결정하는 내적상태 또는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인간행동 연구에 중요 관심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인간의 동기는 생리적 동기(Physiological motive)와 심리적 동기(psychological motive)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생리적 동기는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진 동기로서 모든 인간들 및 모든 유기체들과 공유하는 동기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음식, 수분, 산소, 따뜻함, 고통의 회피, 자극 추구 등에 대한 개인의 생리적 욕구 및 번식에 대한 종의 생물적 욕구가 포함된다. 심리적 동기는 학습과 같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동기로, 모든 개인에게 발견되는 진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육 심리학에서 학습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연구된다. 사회적 안정, 성취, 통제의 동기가 여기에 속하며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에 관심을 갖는다<sup>62)</sup>.

사람마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는가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위대한 성취를 이루도록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성취동기이론의 핵심이 되는 문제들이다. 이에 성취동기는 사회, 학교, 조직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취동기를 처음 연구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은 1938년 미국의 심리학자

---

62) 차상희(1998). 위계적 자아개념 모형과 성취동기간의 관계. 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옥형(1992). 교육심리학. 서울: 집문당.

Murry였다. 이후 성취동기는 Harvard대학의 McClelland교수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널리 보급되었으며, Atkinson은 McClelland와 더불어 성취동기연구에 공헌하였다.

McClelland<sup>63)</sup>는 성취욕구를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고난과 방해를 극복하며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로 정의한다. 또한 성취동기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Murray(1953)의 욕구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는 인간의 행동을 성격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성격체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욕구(need)라고 하고, 환경체계의 중심은 개인의 환경으로부터 지각한 압력(press)이라고 보았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욕구와 압력”이 그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들을 충족하는 것이 욕구이며, 개인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각하는 것이 압력이다. 따라서 이 두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결정된다.

McClelland(1953)는 성취동기를 학습된 동기, 즉 본질에 있어 무의식적 특정한 행동의 보상 또는 처벌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성취동기란 “성취로부터 자부심을 경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Atkinson, 1964). 즉 성취로 인해서 유쾌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이 유쾌한 정서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취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실패가 몰고 온 불유쾌한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회복하려는 동기가 형성된다.

Atkinson<sup>64)</sup>에 따르면 개인의 성취동기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환경적인 요인이 그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제지하는 힘을 발휘한다. 즉 성취욕구와 외부 환경요인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박용현(1977)은 성취동기를 ‘어떤 훌륭하고 어려운 일을 열심히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또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욕구’라고 정의하였고, 김성진

63) McClelland, D. C., Atkinson, J. W., Clark, R. A. & Lowell, E. L. (1953). *The achievement motive*. N.Y.: appleton-Century-Crofts, Inc.

64) Atkinson, J. W. & Birch, D. (1978). *Introduction to motivation*. New York: Von Nostrand Co.

(1975)은 성취동기를 어려운 문제를 마스터하는 과정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기대, 즉, 성취결과나 외적 보상과는 상관없이 과업 그 자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고 촉진하려는 내적성향을 성취동기라고 정의하였다. 정원식<sup>65)</sup>은 성취동기는 ‘미리 예견된 탁월 기준과 실제적인 업무수행간의 차이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과 그 감정이 다양한 단서와 연합한 경험을 많이 가진 개인에게 형성되는 동기’라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정범모(1967)는 성취동기란 ‘일반적으로 어떤 훌륭하고 어려운 과업이나 과제를 달성하려는 개인의 비교적 지속적인 특성으로, 비교 수준에 비해 잘하려고 하는 내적인 의욕’으로 정의하였다.

이상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성취동기는 ‘인간내면에서 추구하는 자신의 기대를 실현시켜 만족감을 얻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실천 욕구’라 하겠다.

### 3-2. 성취동기의 중요성

성취동기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의 능력에 비추어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탐색하게 하며 그러한 일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그러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순전히 우연이나 요행으로만 가능한 일에는 별 흥미를 갖지 못하며, 그들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에 보다 도전적 흥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들은 성취결과를 구체적으로 예견함으로써 그들의 성취활동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성취결과를 그들의 성취목표로 삼으려 하지 않고 성공의 척도 내지 수단으로 간주한다.

성취인은 이기적이 아니며, 개인을 위해서나 집단을 위해서나 마찬가지로 작업에 열중하며, 과업자체의 성취과정에 보다 흥미를 갖는다. 따라서 과업수

65) 정원식(1976). 교육심리학연구의 반성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Vol.2 No.2.

행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여긴다. 또한 그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에 얻어질 성취만족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과업에 열중한다<sup>66)</sup>.

진정한 의미의 성취인은 일을 창조하는 즐거움, 자기의 실력이 반영되는 즐거움, 자기의 정력과 독창성을 구사하는 즐거움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였다. 미술학습 성취동기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개인 발전의 중요한 심리적 힘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력 신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의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취동기는 개인의 중요한 정의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미술과에 대한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하여 성취동기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많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 3-3. 미술교과의 성취동기

정해순<sup>67)</sup>은 학습자들의 “미술학습에 훌륭한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내적 의욕 또는 내적 성향을 말하며, 곤란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가급적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등의 경향과, 미술수업시간에 대한 창의성, 감상성, 계획성을 취하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미술교과의 성취동기는 학습자의 발전을 촉진시켜주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미술과의 학습자들의 성취동기는 장래에 미술에 대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미술 학습 시 계획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미술수업이나 미술관에서 감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66) 우인아(2006). 집단미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7) 정해순(2006). 자아개념, 자기조절학습, 자기효능감 및 미술학습 성취동기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리학은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도 동기요인을 중요시한다. 그 중에서도 발전을 위한 원동력인 성취동기는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며 일의 결과로 얻어질 보상보다는 성취하는 과정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높은 성취동기는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성취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개인 발전을 촉진시켜 주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Atkinson<sup>68)</sup>은 성취 지향적 활동이 학습과제에서 성공하려는 욕구와 가깝다고 보았으며, 성취동기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실패에 대한 불안보다 성공에 대한 희망이 크지만, 성취동기 수준이 낮은 사람은 성공에 대한 희망보다 실패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취동기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분석하고, 다른 연구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미술교육에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

68) Atkinson, J.W. & Reaher, N.T.(1996). *A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New York: Wiley.

## 4. 학습 흥미

### 4-1. 흥미의 개념

아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서 탁월성을 드러내거나 보다 짧은 관심과 노력을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동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들의 흥미에 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흥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한 Dewey는 흥미를 사람의 내부로부터 스스로 생겨 나와 외적 대상과 연결지어 주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한 흥미에 관하여 그의 지적 흥미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흥미는 행위를 통하여 자아의 어떤 대상 혹은 관념과 동일시 할 때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지·정·의의 조합의 형태를 띠게 되며, 이는 대상이나 관념이 자아에게 자연적 동기력이나 정서적 강제력을 생성시키는 기능에 의하여 성립되고 유지되는데, 경험 안에서 나오는 모든 대상은 그 경험을 주거나 가로막는 정서적 색조(emotional color)를 지니며 그것 자체의 특별하고 독특한 흥미를 얻는다”고 하였다(김재만, 1980 재인용)<sup>69)</sup>.

일반적으로 흥미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주의(attention)의 뜻으로 사용되거나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 방향을 규정하는 심적 태도나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동기<sup>70)</sup>로 설명되어지기도 하여 우호적 유의성을 가진 대상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흥미란 때때로 주의, 태도, 동기, 유인성과 관계 지어 설명되고 있는데 흥미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Gardner & Tamir(1989)는 “흥미란 어떤 유형의 활동(학습)에 보다 더 참가

69) 김재만(1980). *두이철학*. 서울 : 태영사.

70) 김정규, 김영수(1988).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 형설출판사.

하려는 선호도로 고도의 특정한 태도로 여겨지며, 특정 현상이나 활동(학습)에 흥미를 가질 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정범모는 흥미란 중요한 심리학적 요인이며 여러 인간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흥미란 어떤 종류의 활동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쾌, 불쾌, 수락의 경험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이종금, 2000 재인용). 이상로 외(1989)는 “흥미란 어떤 대상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택적인 마음가짐이라고 말하며, 항상 정서를 동반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수용 및 거부적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권태욱(1995)는 “흥미란 어떤 활동 또는 사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느낌”이라고 하며 사람들은 각기 다른 흥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흥미를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계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흥미란 대상에 대한 선호 즉, 수용-거부와 같은 선택적인 행동태세이다.’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흥미는 인간행동의 유발성을 가지며, 그 행동의 발전 방향을 정하여 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교육상 중요시 되고 있다.

#### 4-2. 학습흥미

Gardner & Tamir(1989)는 학습흥미의 개념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떤 유형의 활동에 참여하기 좋아하는 특성으로 태도의 아주 특수한 유형을 이루고, 개인적 기질 또는 체 특성을 지니며, 정의적 상태를 수반한다고 한다<sup>71)</sup>. 이와 같이 ‘흥미’연구에 있어서 초기연구에서는 흥미의 단일 차원의 특성으로 보았으나, 그 후에는 흥미가 특정교과, 특정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되었고, 미시적이며 다차원적인 속성에서 측정도구의 연구가 진행

71) 이종금(2000). 초등학교 자연과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와 성취도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되어 왔다.

또한 장병림(1970)은 학습흥미는 학습효과를 올리는데 있어서 중요할 뿐 아니라, 흥미의 계발은 동기화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습흥미와 교과 성적은 상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Strong(1943)은 학습흥미와 능력간의 관계를 그 교과목에 대한 애착 또는 호의정도 또는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 여하에 따라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거나 반대로 싫어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좋고 싫음을 제각기 달리 반응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김재만, 1980).

이와 같이 학습흥미란 어떤 학습활동이나 교과목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수용적인 관심이나 태도를 갖도록 하는 원동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학습흥미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교육적 기능 및 필요에 의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4-3. 미술교과의 학습흥미 중요성

흥미가 학생의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흥미는 어떤 분야에 대한 동기가 작용한다. 학생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흥미가 적거나 없는 활동분야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낮다. 그러므로 학생 활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그들의 흥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학습흥미의 정도가 학습활동에 영향을 준다. 학습흥미의 결여가 학습활동을 저해한다는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학생의 흥미는 형성 중에 있는 것이므로 학생의 경험 자체가 흥미의 발달에 작용한다. 아동기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아동들의 흥미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교육대학 교재편찬위원회, 1985). 아동의 학습흥미발달에 필요한 경험은 아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렇듯 아동기의 학습흥미 발달의 경험이 충족되

지 못할 시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흥미의 지속성 조사에 의하면 11세 이전까지의 흥미는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것이라고 하며 대체적으로 11세-18세 사이의 흥미는 일시적임을 벗어나 잠정적인 것으로 되며, 그 이후의 흥미는 실현적이고 안정성 있는 흥미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Jersid에 의하면 아동기의 흥미는 그들의 지적 발달의 확대로 말미암아 흥미를 끄는 영역이 넓어지고 따라서 더 많은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키게 되어 학습화 행동을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교육대학 교육편찬위원회, 1985).

흥미는 미술교과의 학습에 있어 '미술에 흥미가 있다'라고 할 때, 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며,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느낌이 상태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미술교과의 학습흥미의 발달을 도모하고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학습흥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 Ⅲ. 연구의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논문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를 물리적 교육환경에 따라 (미술실이 없고 환경이 열악한 곳, 미술실은 있으나 사용이 잘되지 않는 곳, 최신시설의 미술실을 갖춘 곳) 3곳을 선정하고,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년에 약 90명씩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45명의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지의 내용과 표현을 수정·보안한 후 초등학교 교장, 교사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가지고 대상학교를 찾아가 정규수업시간에 배포하고 수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270부를 배부하여 100% 회수하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24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학교구분별, 성별, 학년별 표집현황은 다음<표Ⅲ-1>과 같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교구분별로는 최신시설의 미술실을 보유한 학교가 35.3%, 미술실이 있으나 사용 않는 학교가 32.5%, 미술실이 없고 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32.1%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46.2%, 여자가 53.8%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이 33.7%, 5학년이 34.1%, 6학년이 32.1%로 나타났다.

<표Ⅲ-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빈도	%
학교구분	최신시설 미술실 보유 학교	88	35.3%
	미술실이 있으나 사용 않는 학교	81	32.5%
	미술실 없고 환경이 열악한 학교	80	32.1%
성별	남	115	46.2%
	여	134	53.8%
학년	4학년	84	33.7%
	5학년	85	34.1%
	6학년	80	32.1%
총인원		249	100.0%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교육환경이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미술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 그리고 학습 흥미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설문 문항에서는 미술과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이성도, 김혜숙, 2003; 방희정, 2005)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의 관계를 밝힌 연구(김은진, 2004; 김일태, 2000; 황향숙, 2002) 등의 선행논문을 참고로 연구 취지에 맞도록 정리 보완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조사영역 및 내용은 <표Ⅲ-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Ⅲ-2> 설문지의 조사영역 및 내용

조사영역 및 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여부	1, 2	2	
미술과 흥미도	미술과목에 대한 흥미도	3, 4, 5	3	
미술과의 자기효능감	교과 성공 신념 영역(자신감)	6(1-2)	2	
성취동기	교과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대처능력 (과제 난이도, 선호도)	6(3-4)	2	
미술과의 교육환경	물리적 교육환경	교실환경	6(5-6)	2
		미술준비물	6(7)	1
		교육과정	6(8-10)	3
	심리적 교육환경	교사	6(11-13)	3
		학부모	6(14-16)	3
		친구	6(17-19)	3
		그 외의 심리적 환경	6(20-23)	4
	총 계			28

아동들의 미술과의 교육환경,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대한 문항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분항(6-13,15,16,18,23)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 하고, 제외한 일부분항은 ‘매우 그렇다’ 1점, ‘대체로 그렇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술과 교육환경, 자기 효능감과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표Ⅲ-3>.

<표Ⅲ-3> 문항별 점수화 기준

구분	문항의 응답	점수
6-(1~12, 14, 17, 19~22)	매우 그렇다	5
	대체로 그렇다	4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
6-(13,15,16,18,23)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그렇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5

###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표집 된 연구대상에게 각 척도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정리 작업을 거쳐 불확실하거나 불성실한 반응한 경우를 모두 배제하여 통계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차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

으로 정의적 특성의 학교별, 성별, 학년별 차이에 대한 의의도 검증을 위해서는  $t$ 검증을, 학교별 개별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이 사용되었고, 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흥미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과 연합효과분석을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에 앞서, 먼저 수집된 자료가 가정에 부합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설문지 각 문항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 3-1.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흥미도의 신뢰도<표Ⅲ-4>

미술과의 자기효능감 항목을 구성하는 2가지 항목에 대해 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text{Alpha} = 0.595$ 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 임계치 0.6에 근접하여 개념의 신뢰도는 보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취동기 항목을 구성하는 2가지 항목에 대해 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text{Alpha} = 0.783$ 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 임계치 0.6을 넘어 개념의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리적 교육환경(교실환경) 항목을 구성하는 2가지 항목에 대해 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text{Alpha} = 0.837$ 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 임계치 0.6을 넘어 개념의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리적 교육환경(교육과정) 항목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에 대해 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text{Alpha} = 0.675$ 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 임계치 0.6을 넘어 개념의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교육환경(교사) 항목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에 대해 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text{Alpha} = 0.684$ 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 임계치 0.6을 넘어 개념의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교육환경(학부모) 항목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에 대해 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text{Alpha} = 0.591$ 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 임계치 0.6에 근접하여 개념의 신뢰도는 보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교육환경(친구) 항목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에 대해 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text{Alpha} = 0.593$ 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 임계치 0.6에 근접하여 개념의 신뢰도는 보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 교육환경(그 외의 심리적 환경) 항목을 구성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개념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text{Alpha} = 0.753$ 로 나타났다. 신뢰도 계수 임계치 0.6을 넘어 개념의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Ⅲ-4> 개념의 신뢰도 분석표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미술과의 자기효능감1	.(a)	0.595	2
미술과의 자기효능감2	.(a)		
성취동기1	.(a)	0.783	2
성취동기2	.(a)		
물리적 교육환경(교실환경)1	.(a)	0.837	2
물리적 교육환경(교실환경)2	.(a)		
물리적 교육환경(교육과정)1	0.47	0.675	3
물리적 교육환경(교육과정)2	0.564		
물리적 교육환경(교육과정)3	0.7		
심리적 교육환경(교사)1	0.412	0.684	3
심리적 교육환경(교사)2	0.535		
심리적 교육환경(교사)3	0.783		
심리적 교육환경(학부모)1	0.591	0.591	3
심리적 교육환경(학부모)2	0.22		
심리적 교육환경(학부모)3	0.296		
심리적 교육환경(친구)1	0.034	0.593	3
심리적 교육환경(친구)2	0.593		
심리적 교육환경(친구)3	0.345		
심리적 교육환경 (그 외의 심리적 환경)1	0.344	.753	4
심리적 교육환경 (그 외의 심리적 환경)2	0.173		
심리적 교육환경 (그 외의 심리적 환경)3	0.379		
심리적 교육환경 (그 외의 심리적 환경)4	0.753		

\* (a): 문항수가 작아 전체신뢰도만 계산됨

## IV. 연구가설 검증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가 성별, 학교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습자의 학습흥미의 이유를 파악하였다. 그 후 미술교육과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상관을 분석하고, 미술교육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성취동기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1.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학습자별 차이 분석

**[가설1]** 학습자의 성별 및 학년별에 따라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술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대상의 성별차이는  $t$ -검증을 하였으며, 4, 5, 6학년 학년별 차이는 분산분석으로 검증을 하였다.

1-1. 학습자의 성별에 따라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표 IV-1>

#### (1) 교육환경전체

성별에 따른 교육환경전체의 차이를  $t$ -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t=-3.502$ ,  $p<.01$ ) 교육환경전체에 따라 남자의 경우  $3.36\pm 0.548$ 점, 여자의 경우  $3.62\pm 0.612$ 점으로 나타났다.

## (2) 물리적 교육환경

성별에 따른 물리적 교육환경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p>.05$ ) 물리적 교육환경에 따라 남자의 경우  $3.030\pm 0.663$ 점, 여자의 경우  $3.157\pm 0.694$ 점으로 나타났다.

## (3) 심리적 교육환경

성별에 따른 심리적 교육환경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t=-4.262$ ,  $p<.001$ ) 심리적 교육환경에 따라 남자의 경우  $3.256\pm 0.528$ 점, 여자의 경우  $3.563\pm 0.596$ 점으로 나타났다.

## (4) 미술교과에 대한 자기효능감

성별에 따른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t=-2.777$ ,  $p<.01$ )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에 따라 남자의 경우  $3.409\pm 0.895$ 점, 여자의 경우  $3.728\pm 0.911$ 점으로 나타났다.

## (5) 미술교과에 대한 성취동기

성별에 따른 성취동기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t=-3.969$ ,  $p<.001$ ) 성취동기에 따라 남자의 경우  $3.383\pm 0.994$ 점, 여자의 경우  $3.851\pm 0.867$ 점으로 나타났다.

## (6) 미술교과에 대한 학습흥미

성별에 따른 학습흥미도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t=3.177$ ,  $p<.01$ ) 학습흥미에 따라 남자의 경우  $2.217\pm 1.168$ 점, 여자의 경우  $1.776\pm 1.023$ 점으로 나타났다.

<표IV-1> 성별\_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흥미도\_t-test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교육환경	남	115	3.360	0.548	-3.502	0.001**
	여	134	3.620	0.612		
물리적 교육환경	남	115	3.030	0.663	-1.461	0.145
	여	134	3.157	0.694		
심리적 교육환경	남	115	3.256	0.528	-4.262	0.000***
	여	134	3.563	0.596		
자기 효능감	남	115	3.409	0.895	-2.777	0.006**
	여	134	3.728	0.911		
성취동기	남	115	3.383	0.994	-3.969	0.000***
	여	134	3.851	0.867		
학습흥미	남	115	2.217	1.168	3.177	0.002**
	여	134	1.776	1.023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 교육환경(심리적),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 모든 면에서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물리적인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남·여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학습자의 학년에 따라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IV-2>

(1) 교육환경전체

학년별 교육환경전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392, p<.01) 교육환경전체에 따라 4학년의 경우 3.698±0.516점, 5학년의 경우 3.411±0.669점, 6학년의 경우 3.386±0.545점으로 나타났다.

(2) 물리적 교육환경

학년별 물리적 교육환경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7.287$ ,  $p<.01$ ) 물리적 교육환경에 따라 4학년의 경우  $3.399\pm 0.533$ 점, 5학년의 경우  $2.906\pm 0.765$ 점, 6학년의 경우  $2.988\pm 0.624$ 점으로 나타났다.

### (3) 미술교과에 대한 성취동기

학년별 성취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724$ ,  $p<.01$ ) 성취동기에 따라 4학년의 경우  $3.911\pm 0.868$ 점, 5학년의 경우  $3.541\pm 1.001$ 점, 6학년의 경우  $3.444\pm 0.938$ 점으로 나타났다.

### (4) 미술교과에 대한 흥미도

학년별 미술과목에 대한 학습흥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7.04$ ,  $p<.01$ ) 학습흥미에 따라 4학년의 경우  $1.619\pm 0.849$ 점, 5학년의 경우  $2.188\pm 1.314$ 점, 6학년의 경우  $2.138\pm 1.04$ 점으로 나타났다.

<표IV-2> 학년별\_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흥미도\_분산분석(one-way ANOVA)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심리적 교육환경	4학년	84	3.539	0.547	2.985	0.052
	5학년	85	3.400	0.639		
	6학년	80	3.320	0.548		
	합계	249	3.421	0.585		
물리적 교육환경	4학년	84	3.399	0.533	13.928	0.000***
	5학년	85	2.906	0.765		
	6학년	80	2.988	0.624		
	합계	249	3.098	0.681		
교육환경 전체	4학년	84	3.698	0.516	7.392	0.001**
	5학년	85	3.411	0.669		
	6학년	80	3.386	0.545		
	합계	249	3.500	0.596		
자기 효능감	4학년	84	3.702	0.854	1.159	0.316
	5학년	85	3.535	1.005		
	6학년	80	3.500	0.875		
	합계	249	3.580	0.916		
성취동기	4학년	84	3.911	0.868	5.724	0.004**
	5학년	85	3.541	1.001		
	6학년	80	3.444	0.938		
	합계	249	3.635	0.955		
학습흥미	4학년	84	1.619	0.849	7.04	0.001**
	5학년	85	2.188	1.314		
	6학년	80	2.138	1.040		
	합계	249	1.980	1.112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 교육환경(물리적), 성취동기, 학습흥미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으나, 자기효능감은 학년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에 대한 결과를 보면, 학습자의 성별 및 학년별에 따라 교육환경, 성취동기, 학습흥미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미술교과에 대한 학습흥미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교육환경, 성취동기,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반면, 학습흥미는 4학년에 비해 6학년이 학습흥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환경, 성취동기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6학년에 비해 4학년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술에 대한 학습흥미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4학년에 비해 6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학교 시설에 따른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차이분석

[가설2]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학습흥미’는 학교시설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IV-3>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미술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가 학교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분석하였다.

### (1) 교육환경전체

학교구분별 교육환경전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532$ ,  $p<.05$ ) 교육환경전체에 따라 최신시설의 미술실을 갖춘 경

우  $3.6 \pm 0.603$ 점, 미술실이 있으나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  $3.543 \pm 0.518$ 점, 학교 환경이 열악하여 미술실이 없는 경우  $3.369 \pm 0.638$ 점으로 나타났다.

## (2) 물리적 교육환경

학교구분별 물리적 교육환경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7.075$ ,  $p<.01$ ) 물리적 교육환경에 따라 최신시설의 미술실을 갖춘 경우  $3.27 \pm 0.658$ 점, 미술실이 있으나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  $3.15 \pm 0.569$ 점, 학교 환경이 열악하여 미술실이 없는 경우  $2.894 \pm 0.748$ 점으로 나타났다.

학교구분별 나머지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분석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p>.05$ )

<표IV-3> 학교구분별\_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흥미도\_분산분석  
(oneway ANOVA)

	학교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교육 환경 전체	최신시설의 미술실	88	3.600	0.603	3.532	0.031*
	미술실 있음	81	3.543	0.518		
	미술실 없음	80	3.369	0.638		
	합계	249	3.500	0.596		
물리 적 교육 환경	최신시설의 미술실	88	3.270	0.658	7.075	0.001**
	미술실 있음	81	3.150	0.569		
	미술실 없음	80	2.894	0.748		
	합계	249	3.098	0.681		
심리 적 교육 환경	최신시설의 미술실	88	3.471	0.600	1.775	0.172
	미술실 있음	81	3.474	0.540		
	미술실 없음	80	3.327	0.605		
	합계	249	3.421	0.585		
자기 효능 감	최신시설의 미술실	88	3.648	0.904	0.812	0.445
	미술실 있음	81	3.611	0.939		
	미술실 없음	80	3.475	0.907		
	합계	249	3.580	0.916		
성취 동기	최신시설의 미술실	88	3.585	1.021	0.23	0.795
	미술실 있음	81	3.685	0.882		
	미술실 없음	80	3.638	0.961		
	합계	249	3.635	0.955		
학습 흥미 도	최신시설의 미술실	88	1.977	1.203	0.003	0.997
	미술실 있음	81	1.988	1.135		
	미술실 없음	80	1.975	0.993		
	합계	249	1.980	1.112		

이러한 결과로 보면,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학습흥미’는 학교시설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물리적 교육환경에서만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이는 시설이 좋은 학교일수록 물리적 교육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심리적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는 학교시설에 따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을 통하여 학교시설은 학습자에게 물리적인 교육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술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미술교육환경이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간의 상관분석

[가설3] ‘미술교육환경’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는 의미 있는 상호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3]은 미술교육환경과 미술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의미 있는 상관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3-1. 미술교육환경,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상관관계 <표 IV-4>

##### (1)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교육환경 요인( $r=.551$ ), 미술과의 자기효능감과 물리적 교육환경 요인( $r=.428$ ), 미술과의 자기효능감과 교육환경전체 요인( $r=.545$ ), 사이에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술교과의 성취동기

성취동기와 심리적 교육환경 요인( $r=.640$ ), 성취동기와 물리적 교육환경 요인( $r=.576$ ), 성취동기와 교육환경전체 요인( $r=.667$ ),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요인( $r=.610$ ) 사이에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미술교과의 학습흥미

학습흥미와 심리적 교육환경 요인( $r=.604$ ), 학습흥미와 물리적 교육환경 요인( $r=.581$ ), 학습흥미와 교육환경전체 요인( $r=.646$ ), 학습흥미와 자기효능감 요인( $r=.582$ ), 학습흥미와 성취동기 요인( $r=.684$ )사이에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4> 교육환경에 따라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 간에 의미 있는 관계\_상관분석

	심리적 교육환경	물리적 교육환경	교육환경	자기 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
심리적 교육환경	1 249					
물리적 교육환경	.647(**) 0 249	1 249				
교육환경	.942(**) 0 249	.859(**) 0 249	1 249			
자기 효능감	.551(**) 0 249	.428(**) 0 249	.545(**) 0 249	1 249		
성취동기	.640(**) 0 249	.576(**) 0 249	.667(**) 0 249	.610(**) 0 249	1 249	
학습흥미	.604(**) 0 249	.581(**) 0 249	.646(**) 0 249	.582(**) 0 249	.684(**) 0 249	1 249

\*\*상관계수는0.01수준(양쪽)에서유의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미술교육환경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는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미술교육환경은 성취동기(.667)>학습흥미(.646)>자기효능감(.545)순으로, 물리적 교육환경은 학습흥미(.581)>성취동기(.576)>자기효능감(.428)순으로, 심리적 교육환경은 성취동기(.640)>학습흥미(.604)>자기효능감(.551)순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요인( $r=.610$ ), 학습흥미와 자기효능감 요인( $r=.582$ ), 학습흥미와 성취동기 요인( $r=.684$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미술교육환경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가 의미 있는 상호 상관이 있으므로 [가설3-1]이 긍정되었다.

### 3-2.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인들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흥미도의 상관관계

#### (1)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과 교육환경( $r=.239$ ), 자기효능감과 미술준비물( $r=.272$ ), 자기효능감과 교육과정( $r=.479$ ), 자기효능감과 교사( $r=.313$ ), 자기효능감과 학부모( $r=.250$ ), 자기효능감과 친구( $r=.507$ ), 자기효능감과 그 외의 심리적 환경( $r=.520$ ) 사이에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취동기

성취동기와 교실환경( $r=.338$ ), 성취동기와 미술준비물( $r=.342$ ), 성취동기와 교육과정( $r=.651$ ), 성취동기와 교사( $r=.426$ ), 성취동기와 학부모( $r=.383$ ), 성취동기와 친구( $r=.509$ ), 성취동기와 그 외의 심리적 환경( $r=.531$ ),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 $r=.610$ ) 사이에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습흥미

학습흥미와 교실환경( $r=.358$ ), 학습흥미와 미술준비물( $r=.393$ ), 학습흥미와 교육과정( $r=.627$ ), 학습흥미와 교사( $r=.422$ ), 학습흥미와 학부모( $r=.370$ ), 학습흥미와 친구( $r=.445$ ), 학습흥미와 그 외의 심리적 환경( $r=.502$ ), 학습흥미와 자기효능감( $r=.582$ ), 학습흥미와 성취동기( $r=.684$ ) 사이에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5> 교육환경의 하위요인들과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상관분석

	물리적 교육환경			심리적 교육환경				자기효 능감	성취동 기	학습흥 미
	교실환 경	미술준 비물	교육과 정	교사	학부모	친구	그 외의 심리적 환경			
교실 환경	1 249									
미술 준비물	.713** 0 249	1 249								
교육 과정	.559** 0 249	.643** 0 249	1 249							
교사	.401** 0 249	.504** 0 249	.678** 0 249	1 249						
학부모	.164** 0.009 249	.188** 0.003 249	.322** 0 249	.238** 0 249	1 249					
친구	.395** 0 249	.435** 0 249	.521** 0 249	.532** 0 249	.254** 0 249	1 249				
그 외의 심리적 환경	.305** 0 249	.264** 0 249	.445** 0 249	.342** 0 249	.329** 0 249	.499** 0 249	1 249			
자기 효능감	.239** 0 249	.272** 0 249	.479** 0 249	.313** 0 249	.250** 0 249	.507** 0 249	.520** 0 249	1 249		
성취 동기	.338** 0 249	.342** 0 249	.651** 0 249	.426** 0 249	.383** 0 249	.509** 0 249	.531** 0 249	.610** 0 249	1 249	
학습 흥미	.358** 0 249	.393** 0 249	.627** 0 249	.422** 0 249	.370** 0 249	.445** 0 249	.502** 0 249	.582** 0 249	.684** 0 249	1 249

\*\*상관계수는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은 미술교과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그 외의 심리적환경(.520)>친구(.507)>교육과정(.479)>교사(.313)>미술준비물(.272)>부모(.250)>교실환경(.239)순으로, 성취동기는 교육과정(.651)>그 외의 심리적환경(.610)친구(.509)>교사(.426)>부모(.383)>미술준비물(.342)>교실환경(.338)순으로, 학습흥미는 교육과정(.627)>그외의 심리적환경(.502)>친구(.445)>교사(.422)>미술준비물(.393)>부모(.370)>교실환경(.358) 상관관계가 있는 나타났다.

이에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과 미술교과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는 상호 상관이 있으므로 [가설3-2]는 긍정되었다.

#### 4. 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가설4] 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이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인으로 미술교육환경을, 종속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를 설정하여 단계적 투입방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같은 방식으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투입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이란 독립변수 1단위량의 증감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기법으로,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단계적 투입방

식은 종속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부터 순서대로 투입되므로, 각각에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영향력 중분 값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가 다중회귀분석의 가정에 부합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여부(Cubin-Watson test)와 잔차통계량을 각각의 다중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분석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가정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잔차의 독립성, 잔차의 정규분포성 등을 포함한다(김계수, 2001; 허만영, 2001)<sup>72)</sup>. 다중공선성이란 독립변인들간의 높은 상관으로 인해 실제 종속변수와 관계가 없거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sup>73)</sup>.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1. 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기준인 0.3보다 크다.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bin Watson 값을 산출한 결과 기준이 되는  $d > 1.54$ 보다 크다. 오차항의 정상분포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표준화 잔차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는 1에 가까우므로 오차항의 잔차는 정상분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가 다중회귀분석의 3가지 기본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

72) 허만영(2001). 통계분석론, 서울: 법문사.

73) 안재영(2006).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가 미술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논문집, 제47집. PP. 103-115.

<표IV-6> 잔차의 독립성 여부와 잔차통계량(a)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
예측값	2.015	4.837	3.580	0.511	249
잔차	-2.200	1.881	0.000	0.759	249
표준화 예측값	-3.06	2.457	0.000	1	249
표준화 잔차	-2.885	2.467	0.000	0.996	249

a종속변수:미술과의자기효능감

Durbin-Watson test = 1.756

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 $R^2=.312$ ,  $F=55.776$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가운데서는 심리적 교육환경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은 설명력이 적어 회귀모형의 구성에서 제외되었다.

<표IV-7> 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_다중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0.545	0.291		1.872	0.062	
	심리적 교육환경	0.737	0.109	0.471	6.791	0.000***	0.581
	물리적 교육환경	0.165	0.093	0.123	1.774	0.077	0.581
		$R^2=.312$ ,		$F=55.776$ ,	$p=.000***$		

a종속변수:미술과의자기효능감

#### 4-2. 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분석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기준인 0.3보다 크다.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 Watson 값을 산출한 결과 기준이 되는  $d > 1.54$ 보다 크다. 오차항의 정상분포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표준화 잔차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는 1에 가까우므로 오차항의 잔차는 정상분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가 다중회귀분석의 3가지 기본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IV-8> 잔차의 독립성 여부와 잔차통계량(a)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
예측값	1.929	5.181	3.580	0.581	249
잔차	-2.227	1.902	0.000	0.708	249
표준화 예측값	-2.844	2.756	0.000	1	249
표준화 잔차	-3.101	2.648	0.000	0.986	249

a종속변수:미술과의자기효능감

Durbin-Watson test = 1.624

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 $R^2=.402$ ,  $F=23.16$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가운데서는 그 외 심리적 교육환경, 친구, 교육과정 순으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은 설명력이 적어 회귀모형의 구성에서 제외되었다.

<표IV-9> 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_다중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1	(상수)	0.603	0.284		2.119	0.035	
	교실환경	0.082	0.066	0.09	1.24	0.216	0.466
	미술준비물	0.026	0.068	0.03	0.378	0.706	0.392
	교육과정	0.38	0.089	0.351	4.262	0.000***	0.367
	교사	0.14	0.075	0.134	1.882	0.061	0.491
	부모	0.019	0.057	0.018	0.339	0.735	0.851
	친구	0.383	0.086	0.293	4.453	0.000***	0.574
	그 외의 심리적 환경	0.339	0.071	0.294	4.811	0.000***	0.666
<b>R<sup>2</sup>=.402, F=23.16, p=.000***</b>							

a종속변수:미술과의자기효능감

#### 4-3. 교육환경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력분석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기준인 0.3보다 크다.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bin Watson 값을 산출한 결과 기준이 되는  $d > 1.54$ 보다 크다. 오차항의 정상분포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표준화잔차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는 1에 가까우므로 오차항의 잔차는 정상 분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가 다중회귀분석의 3가지 기본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IV-10> 잔차의 독립성 여부와 잔차통계량(a)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
예측값	1.5742	5.1143	3.6345	0.64422	249
잔차	-2.2028	2.19112	0.000	0.70516	249
표준화 예측값	-3.198	2.297	0.000	1	249
표준화 잔차	-3.111	3.095	0.000	0.996	249

a종속변수:성취동기

Durbin-Watson test = 2.009

교육환경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 $R^2=.455$ ,  $F=102.659$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가운데서는 심리적 교육환경, 물리적 교육환경 순으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1> 교육환경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_다중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0.145	0.271		0.534	0.594	
	심리적 교육환경	0.75	0.101	0.459	7.443	0.000	0.581
	물리적 교육환경	0.391	0.087	0.279	4.52	0.000	0.581
		$R^2=.455$ ,		$F=102.659$ ,	$p=.000***$		

a종속변수:성취동기

#### 4-4. 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력분석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기준인 0.3보다 크다.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 Watson 값을 산출한 결과 기준이 되는  $d > 1.54$ 보다 크다. 오차항의 정상분포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표준화 잔차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는 1에 가까우므로 오차항의 잔차는 정상분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가 다중회귀분석의 3가지 기본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IV-12> 잔차의 독립성 여부와 잔차통계량(a)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
예측값	1.2952	5.2193	3.6345	0.70202	249
잔차	-1.89425	1.79649	0.000	0.64764	249
표준화 예측값	-3.332	2.257	0.000	1	249
표준화 잔차	-2.883	2.734	0.000	0.986	249

a종속변수:성취동기

Durbin-Watson test = 2.072

교육환경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 $R^2=.455$ ,  $F=102.659$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가운데서는 교육과정, 그 외 심리적 교육환경, 친구 순으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3> 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_다중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0.165	0.26		0.633	0.528	
	교실환경	0.008	0.061	0.009	0.137	0.891	0.466
	미술준비물	0.119	0.063	0.132	1.897	0.059	0.392
	교육과정	0.648	0.082	0.573	7.938	0.000***	0.367
	교사	0.101	0.068	0.093	1.486	0.139	0.491
	부모	0.143	0.052	0.131	2.759	0.006**	0.851
	친구	0.249	0.079	0.183	3.167	0.002**	0.574
	그 외의 심리적 환경	0.255	0.065	0.211	3.948	0.000***	0.666
		$R^2=.402,$		$F=23.16,$	$p=.000***$		

a종속변수:성취동기

#### 4-5. 교육환경이 학습 흥미에 미치는 영향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기준인 0.3보다 크다.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bin Watson 값을 산출한 결과 기준이 되는  $d > 1.54$ 보다 크다. 오차항의 정상분포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표준화 잔차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는 1에 가까우므로 오차항의 잔차는 정상분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가 다중회귀분석의 3가지 기본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IV-14> 잔차의 독립성 여부와 잔차통계량(a)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
예측값	0.376	4.333	1.980	0.727	249
잔차	-2.031	2.533	0.000	0.842	249
표준화 예측값	-2.206	3.237	0.000	1	249
표준화 잔차	-2.402	2.996	0.000	0.996	249

a종속변수:학습흥미도

Durbin-Watson test = 2.005

교육환경이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 $R^2=.427$ ,  $F=91.709$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가운데서는 심리적 교육환경, 물리적 교육환경 순으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5> 교육환경이 학습 흥미에 미치는 영향\_다중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1	(상수)	6.189	0.323		19.159	0.000	
	심리적 교육환경	0.748	0.12	0.393	6.214	0.000***	0.581
	물리적 교육환경	0.532	0.103	0.326	5.154	0.000***	0.581
$R^2=.427$ , $F=91.709$ , $p=.000***$							

#### 4-6. 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이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기준인 0.3보다 크다.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bin Watson 값을 산출한 결과 기준이 되는  $d>1.54$ 보다 크다. 오차항의 정상분포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표준화 잔차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는 1에 가까우므로 오차항의 잔차는 정상분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가 중다회귀분석의 3가지 기본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IV-16> 잔차의 독립성 여부와 잔차통계량(a)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
예측값	0.255	4.410	1.980	0.767	249
잔차	-1.883	2.673	0.000	0.806	249
표준화 예측값	-2.25	3.168	0.000	1	249
표준화 잔차	-2.303	3.27	0.000	0.986	249

a종속변수:학습흥미도

Durbin-Watson test = 1.947

교육환경이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 $R^2=.427$ ,  $F=91.709$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가운데서는 교육과정, 그 외의 심리적 환경, 학부모 순으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7> 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이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_다중회귀분석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 률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6.155	0.324		19.008	0.000	
	교실환경	0.014	0.075	0.013	0.189	0.85	0.466
	미술준비물	0.004	0.078	0.003	0.047	0.963	0.392
	교육과정	0.644	0.102	0.489	6.341	0.000***	0.367
	교사	0.068	0.085	0.053	0.797	0.426	0.491
	부모	0.171	0.065	0.134	2.651	0.009**	0.851
	친구	0.126	0.098	0.079	1.283	0.201	0.574
	그 외의 심리적 환경	0.315	0.08	0.224	3.917	0.000***	0.666
<b><math>R^2=.475</math>, <math>F=31.181</math>, <math>p=.000***</math></b>							

a종속변수:학습흥미도

이와 같은 결과는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소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흥미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교육환경을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으로 나눈 경우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 모두 심리적 교육환경이 물리적 교육환경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술교육환경을 하위요소로 나눈 경우 자기효능감의 경우 그 외 심리환경>친구>교육과정 순으로, 성취동기의 경우 그 외 심리환경>친구 순으로, 학습흥미는 교육과정>그 외 심리환경>부모 순으로 영향력 있게 나타났다. 즉, 미술교육환경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심리적 교육환경이 높은 영향력이 있으며, 심리적 교육환경 중에서도 그 외의 심리적 환경, 친구, 학부모가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4]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이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긍정되었다. 따라서 심리적 미술교육환경이 초등학교 미술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5. 미술교과가 재미있는 이유 다중응답분석

### 5-1. 미술교과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_다중응답분석

학교구분에 따라 <최신시설의 미술실을 갖춘 학교>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있다가 5.4%,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있다가 24.3%,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있다가 28.4%,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가 5.4%, 다른 과목보다 즐겁기 때문이 37.8%, 기타가 13.5%로 나타났으며, <미술실이 있는 학교>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있다가 10.8%,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있다가 21.5%,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있다가 16.9%,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가 6.2%, 다른 과목보다 즐겁기 때문이 33.8%, 기타가 20%로 나타났으며, <미술실이 없는 학교>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있다가 12.3%,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있다가 24.6%,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있다가 30.8%,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가 6.2%, 다른 과목보다 즐겁기 때문이 32.3%, 기타가 12.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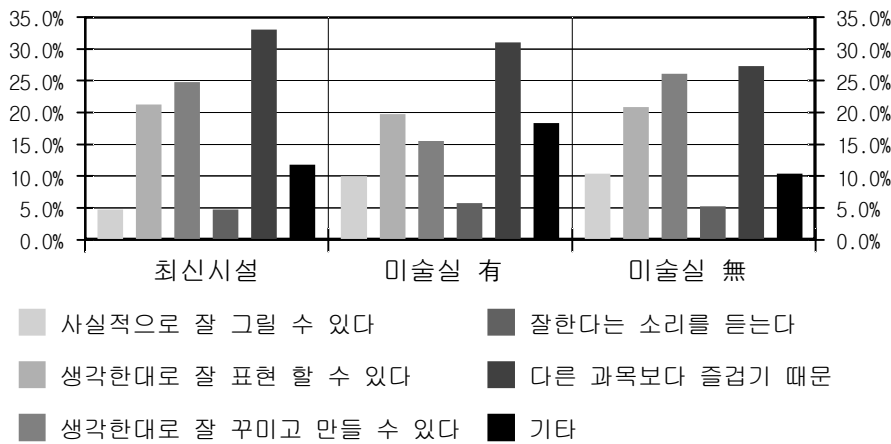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 <남자>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있다가 12.6%,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있다가 27.6%,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있다가 19.5%,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가 2.3%, 다른 과목보다 즐겁기 때문이 25.3%, 기타가 18.4%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있다가 6.8%,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있다가 20.5%,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있다가 29.9%,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가 8.5%, 다른 과목보다 즐겁기 때문이 41.9%, 기타가 12.8%로 나타났다.

학년제에 따라 <4학년>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있다가 12.8%,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있다가 19.2%,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있다가 28.2%,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가 5.1%, 다른 과목보다 즐겁기 때문이 33.3%, 기타가 12.8%로 나타났으며, <5학년>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있다가 3.2%,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있다가 27%,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있다가 27%,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가 7.9%, 다른 과목보다 즐겁기 때문이 27%, 기타가 23.8%로 나타났으며, <6학년>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있다가 11.1%,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있다가 25.4%,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있다가 20.6%,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가 4.8%, 다른 과목보다 즐겁기 때문이 44.4%, 기타가 9.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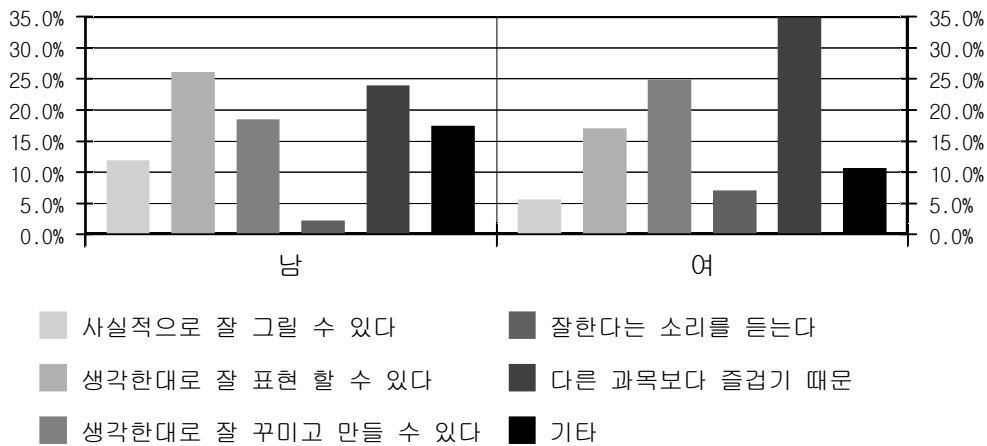
<표IV-18> 미술교과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_다중응답분석

		미술과목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있다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있다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있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다른 과목보다 즐겁기 때문		기타	
		n	%	n	%	n	%	n	%	n	%	n	%
학교구분	최신시설의 미술실	4	5.4	18	24.3	21	28.4	4	5.4	28	37.8	10	13.5
	미술실이 있음	7	10.8	14	21.5	11	16.9	4	6.2	22	33.8	13	20.0
	미술실이 없음	8	12.3	16	24.6	20	30.8	4	6.2	21	32.3	8	12.3
성별	남	11	12.6	24	27.6	17	19.5	2	2.3	22	25.3	16	18.4
	여	8	6.8	24	20.5	35	29.9	10	8.5	49	41.9	15	12.8
학년	4학년	10	12.8	15	19.2	22	28.2	4	5.1	26	33.3	10	12.8
	5학년	2	3.2	17	27.0	17	27.0	5	7.9	17	27.0	15	23.8
	6학년	7	11.1	16	25.4	13	20.6	3	4.8	28	44.4	6	9.5
	합계	19	9.3	48	23.5	52	25.5	12	5.9	71	34.8	31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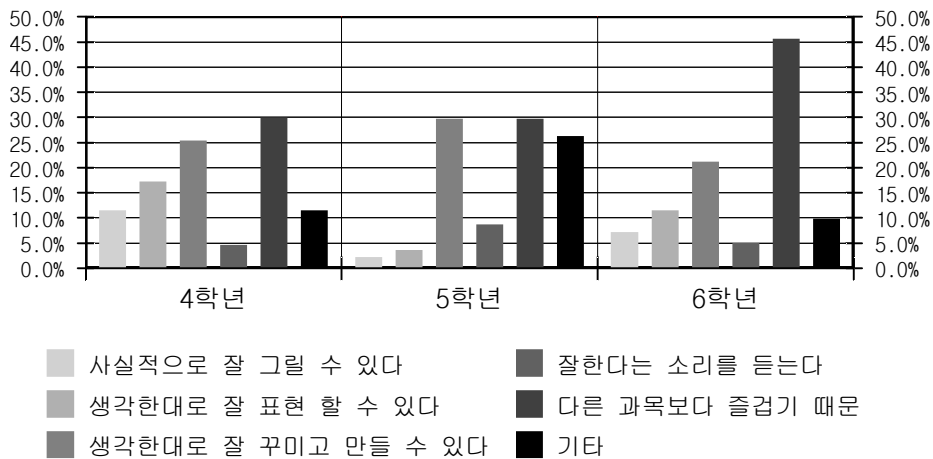
<그림IV-1> 미술교과가 재미있는 이유-학교별



<그림 IV-2> 미술교과가 재미있는 이유-성별



<그림 IV-3> 미술교과가 재미있는 이유-학년별



학교시설, 성별, 학년의 분류로 미술과목의 흥미이유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 성별, 학년에 상관없이 ‘다른 과목보다 즐겁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6학년의 경우 다른 문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상

대적으로 ‘사실대로 잘 그릴 수 있다’는 이유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술교과의 수준은 올라가나 학습자의 수준이 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5-2. 미술교과가 재미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_다중응답분석

학교구분에 따라 <최신시설의 미술실을 갖춘 학교>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없다가 9.5%,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없다가 23.8%,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없다가 19%,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별로 없다가 9.5%, 다른 과목보다 재미없고 힘들다가 19%, 준비물이 많아 귀찮다가 19%, 기타가 9.5%로 나타났으며, <미술실이 있는 학교>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없다가 25%,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없다가 20%,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없다가 30%,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별로 없다가 5%, 다른 과목보다 재미없고 힘들다가 20%, 준비물이 많아 귀찮다가 10%, 기타가 5%로 나타났으며, <미술실이 없는 학교>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없다가 11.1%,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없다가 44.4%,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없다가 33.3%,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별로 없다가 5.6%, 다른 과목보다 재미없고 힘들다가 16.7%, 준비물이 많아 귀찮다가 16.7%, 기타가 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자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없다가 16.7%,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없다가 30.6%,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없다가 22.2%,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별로 없다가 2.8%, 다른 과목보다 재미없고 힘들다가 27.8%, 준비물이 많아 귀찮다가 8.3%, 기타가 5.6%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없다가 13%,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없다가 26.1%,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없다가 34.8%, 잘한다는 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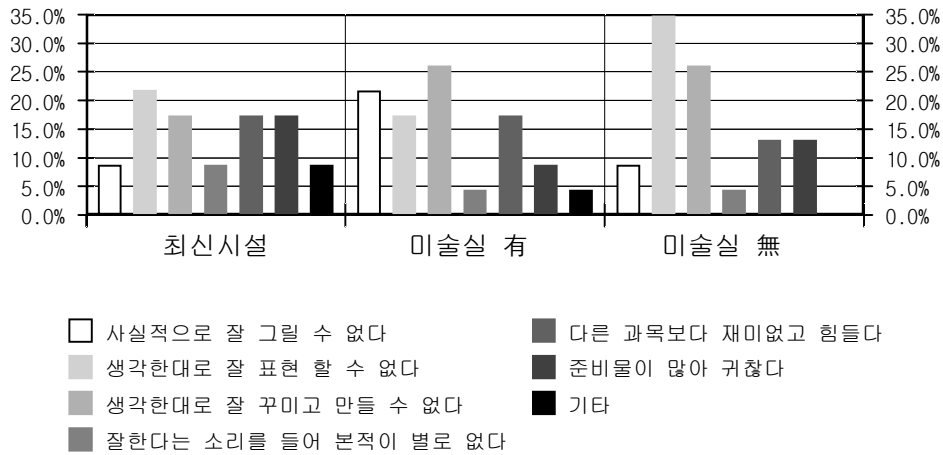
들어 본적이 별로 없다가 13%, 다른 과목보다 재미없고 힘들다가 4.3%, 준비물이 많아 귀찮다가 26.1%, 기타가 4.3%로 나타났다.

학년예 따라 4학년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없다가 16.7%,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없다가 41.7%,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없다가 33.3%,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별로 없다가 8.3%, 다른 과목보다 재미없고 힘들다가 0%, 준비물이 많아 귀찮다가 8.3%, 기타가 8.3%로 나타났으며, 5학년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없다가 19.2%,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없다가 23.1%,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없다가 30.8%,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별로 없다가 7.7%, 다른 과목보다 재미없고 힘들다가 26.9%, 준비물이 많아 귀찮다가 7.7%, 기타가 7.7%로 나타났으며, 6학년의 경우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없다가 9.5%,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없다가 28.6%,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없다가 19%,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별로 없다가 4.8%, 다른 과목보다 재미없고 힘들다가 19%, 준비물이 많아 귀찮다가 28.6%, 기타가 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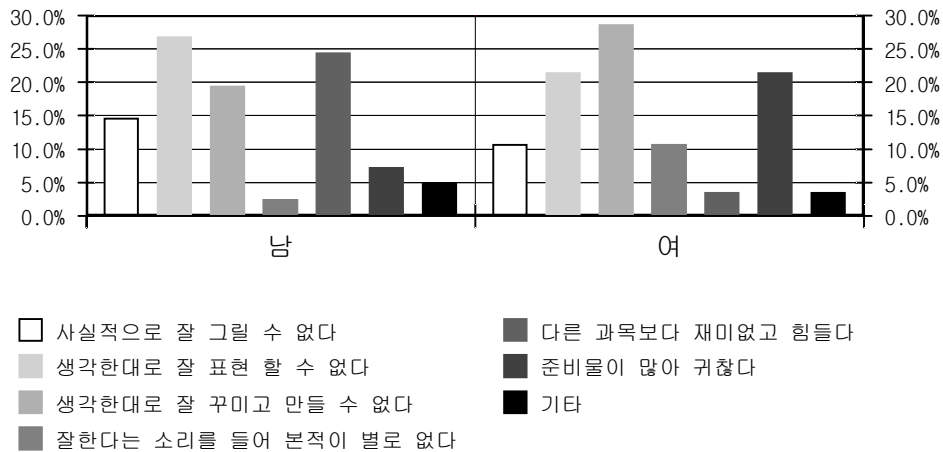
<표IV-19> 미술교과가 재미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_다중응답분석

		미술과목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없다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없다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없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별로 없다		다른 과목보다 재미없고 힘들다		준비물이 많아 귀찮다		기타	
		n	%	n	%	n	%	n	%	n	%	n	%	n	%
학교 구분	최신시설로 의 미술실이 있음	2	9.5	5	23.8	4	19.0	2	9.5	4	19.0	4	19.0	2	9.5
	미술실이 있음	5	25.0	4	20.0	6	30.0	1	5.0	4	20.0	2	10.0	1	5.0
	미술실이 없음	2	11.1	8	44.4	6	33.3	1	5.6	3	16.7	3	16.7	0	0.0
성별	남	6	16.7	11	30.6	8	22.2	1	2.8	10	27.8	3	8.3	2	5.6
	여	3	13.0	6	26.1	8	34.8	3	13.0	1	4.3	6	26.1	1	4.3
학년	4학년	2	16.7	5	41.7	4	33.3	1	8.3	0	0.0	1	8.3	1	8.3
	5학년	5	19.2	6	23.1	8	30.8	2	7.7	7	26.9	2	7.7	2	7.7
	6학년	2	9.5	6	28.6	4	19.0	1	4.8	4	19.0	6	28.6	0	0.0
	합계	9	15.3	17	28.8	16	27.1	4	6.8	11	18.6	9	15.3	3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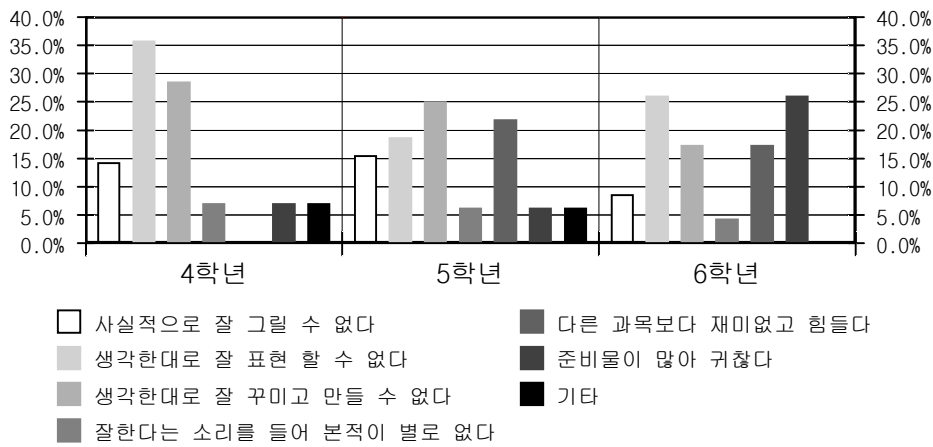
<그림 IV-4> 미술교과가 재미없는 이유-학교별



<그림 IV-5> 미술교과가 재미없는 이유-성별



<그림 IV-6> 미술교과가 재미없는 이유-학년별



위의 결과로 보아 미술교과를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생각대로 표현 할 수 없다’로 나타났다. 학습자가 자신이 생각한 것을 표현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육방법의 주입식 교육이 미술 교육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병폐가 생각하는 것을 기피하고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학습자를 낳았다. 또한 기술적이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기술적이 부분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인해, 미술교과의 창작활동이 미술을 싫어하게 하는 학습자를 낳은 것으로 보여진다.

## V. 논의

본 연구는 미술교과의 초등학생 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습자들의 교육환경(심리적),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는 남·여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지만, 학습흥미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술교과의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미술교과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미술 교과에 대한 흥미도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미술교과에 남학생이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가 낮다고 하여 미술에 대한 학습흥미가 낮다고 보여 지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르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점에서 볼 때 남학생은 미술교과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으나, 여학생들보다 자신감과 과제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남학생을 여학생과 비교하는 것을 피해야하고, 남학생에게 자신감을 길러 줄 수 있는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를 성별에 따라 각각 차별화된 접근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둘째,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습자들의 교육환경(물리적), 성취동기, 학습흥미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환경(물리적), 성취동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았지만, 학습흥미는 4학년이 6학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술교과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반적이 견해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고, 흥미도가 성취동기와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아, 학습에 관한 흥미에 상응하는 학습 내용 또는 학습 방법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년에 따른 실제적인 방법과 교육적 적용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시설에 따라(물리적 교육환경에 따라 최신시설의 미술실을 갖춘 경우, 미술실이 있으나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학교 환경이 열악하여 미술실이 없는 경우) 물리적인 교육환경이 유의미하게 검증되었으나, 심리적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학교시설이 좋을수록 물리적 교육환경이 높으나, 학교시설이 심리적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볼 때 최신시설의 학교라고 해서 학습자의 미술교과에 대한 자신감, 과제성취, 흥미가 교사의 아무런 노력 없이 향상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심리적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넷째, 미술 교육환경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가 의미 있는 정적상관이 있으며,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인들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 간에도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술교육환경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가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전부 상관관계를 보이며, 교육환경의 하위요소 중 교육과정과 그 외의 심리적환경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개선을 위해 미술교수·

학습에 이러한 교육환경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들은 학습자의 자아개념을 파악하여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도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술 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이 미술교과외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 심리적 교육환경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자기효능감의 경우 그 외 심리환경>친구>교육과정 순으로, 성취동기의 경우 그 외 심리환경>친구 순으로, 학습흥미의 경우 교육과정>그 외 심리환경>부모 순으로 영향력 있게 나타났다.

그 외의 심리환경의 경우 칭찬, 상장, 작품전시, 스트레스의 요소가, 친구의 경우 협동심, 관심, 칭찬의 요소가, 부모의 경우 칭찬, 격려, 관심의 요소가, 교육과정의 경우 흥미, 다양한 재료, 다양한 방법의 지도의 요소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교사, 부모, 친구, 그 외의 심리적 교육환경이 포함된 심리적 교육환경이 교실환경, 교육과정, 미술준비물이 포함된 물리적 교육환경보다 높게 영향력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교사, 부모, 친구, 그 외의 심리적인 교육환경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은 미술상과 작품전시, 친구의 칭찬과 관심, 다양한 방법의 교육과정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어려운 과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은 미술상과 작품전시, 친구의 칭찬과 관심으로 나타났고, 학습자의 학습흥미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은 다양한 방법의 교육과정, 미술상과 작품전시, 부모의 칭찬과 격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동기요인을 잘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미술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많은 칭찬과 관심을 가지고 학습자를 대해야 하며,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너무 어려운 교육과정이나, 상투적인 접근은 피하고, 흥미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습자들의 높은 미술 수행 성취를 위해서는 어려운 과제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여 자부심과 성취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학습자들의 미적표현의 흥미영역을 파악하여,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학습흥미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 실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위의 칭찬과 격려를 학습자가 미술교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미술교과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가장 큰 요인은 ‘다른 과목보다 재미있기 때문’이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가장 큰 요인은 ‘생각한 대로 잘 표현할 수 없다’로 나타났다.

미술교과가 다른 교과보다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즐거움의 학문이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미술활동을 하면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미술의 본질이다. 미술활동을 하는 것은 학습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표출되지 못하는 감정들이 표출되면서 자아의 만족을 느낌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에 다른 교과보다 미술이 더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6학년의 경우 ‘다른 교과보다 재미있기 때문’이라는 이 문항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실대로 잘 그릴 수 있다’는 문항에서 매우 낮게 나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술교과의 수준은 올라가나 학습자의 수준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결론은 다른 교과보다 재미있는 교과인 만큼 미술을 통한 자기표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는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야 하며, 학습자 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미술교과가 재미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생각한 대로 잘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자신이 생각한 것을 표현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교육현장의 주입식 교육이 미술교육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학습자들은 창의적인 미술보다는 생각을 적게 하고, 단순암기 형식으로 표현하는 기술적인 면을 더 선호한다. 똑같이 잘 표현해 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술은 예술이기 때문에 창작능력이 더 우선시 되어야한다. 따라서 교사는 기술적인 면보다 창작능력을 더 우선시 하는 교수·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오늘은 새로운 시도를 했구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독특한 표현을 했구나’, ‘정말 몰두해서 열심히 그렸구나’ 등 표현과정과 다양성에 대한 칭찬을 하는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논문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를 물리적 교육환경에 따라 (미술실이 없고 환경이 열악한 곳, 미술실은 있으나 사용이 잘되지 않는 곳, 최신시설의 미술실을 갖춘 곳) 3곳을 선정하고,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년에 약 90명씩 270명 정도로 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45명의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지의 내용과 표현을 수정·보안한 후 초등학교 교장, 교사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가지고 대상학교를 찾아가 정규수업시간에 배포하고 수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270부를 배부하여 100% 회수하였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24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환경과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학습흥미의 관계를 규명하고, 성별, 학년 및 학교에 따라 학습자의 특성을 밝힘으로, 교육현장에서 미술교수·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설 1] 학습자의 성별 및 학년별에 따라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을 성별과 학년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

취동기’, ‘학습흥미’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성별에 따라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의미 있는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심리적),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 모든 면에서 성별에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물리적인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남·여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자의 학년에 따라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의미 있는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물리적), 성취동기, 학습흥미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으나, 자기효능감은 학년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교육환경’,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학습흥미’는 학교시설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는 물리적 교육환경에서만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이는 시설이 좋은 학교 일수록 물리적 교육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시설은 학습자에게 물리적인 교육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미술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3] ‘미술교육환경’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는 의미있는 상호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3은 미술교육환경과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상호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미술교육환경,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술교육환경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

미는 의미 있는 정적 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술교육환경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가 의미있는 상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인들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흥미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은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과 미술교과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가 의미있는 상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4] 교육환경의 하위요소들이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는 미술교육환경과 미술교육환경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미술교육환경을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으로 나눈 경우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 모두 심리적 교육환경이 물리적 교육환경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술교육환경을 하위요소로 나눈 경우 자기효능감의 경우 그 외 심리환경>친구>교육과정 순으로, 성취동기의 경우 그 외 심리환경>친구 순으로, 학습흥미는 교육과정>그 외 심리환경>부모 순으로 영향력 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술교육환경에서 심리적 미술교육환경이 물리적 교육환경보다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으로 나타났다.

## 2. 제언

본 연구는 미술교육환경이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미치는 관련성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적 관점에서 미술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실체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차후 학습자들의 긍정적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를 육성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지도 방법의 방법적 모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 및 결론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 방법은 학습자의 지각에만 의존하는 보고로써 한계를 갖는다.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검사 방법의 다양성이 요구되며, 특히 미술 영역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및 학습흥미에 관한 척도 제작이 필요하다.

둘째, 미술교과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대한 연구는 미술학업성취와 관련지어 연구할 때,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 간의 관련성 및 일반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밝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논문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를 상승시킬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이와 관련 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를 상승시키는 미술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수지도 방법을 모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술교육환경이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에 미치는 관련성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적 관점에서 미술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실체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차

후 학습자들의 긍정적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습흥미를 육성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지도 방법의 방법적 모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권이중, 권재술, 최수영, 권낙원, 허정무(1992). 교직적성 검사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 권태욱(1995). 국민학생의 학습흥미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론과 현장연구, 학지사. p.19-63.
- 김안제(1977). 공해와 질병. 서울 최신의학사.
- 김은진(2004).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이 미술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A, Bandura의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서울: 교육과학사.
- 김의철 외(2003).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교육과학사. p. 79-80.
- 김일태(2000). 미술자아개념, 학업 자아개념 및 상황불안이 미술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 김재만(1980). 듀이철학. 서울 : 태영사.
- 김정규, 김영수(1988).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 형설출판사.
- 김중서, 김영찬(1983). 수업형태 분석법, 교육과학사.
- 김지균, 이성도, 김혜숙(2007). 한·일 학생작품의 표현방법과 조형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21권 제1호. pp. 53-80.
- 김지영(2001). 초등학교 물리적 교육환경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 분석,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12.
- 김화영(2003). 대학생 진로결정의 흥미타협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3.
- 김향기(2005). 초등 교사들의 미술교수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사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9권 1호, pp.105-126.

- 문명애(2001). 자아개념과 자아효능감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현(1968). 교사자질의 예언변인의 탐색과 그 측정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4-35. (김중서 외, 수업형태분석법, 1983에서 재인용)
- 방정희(2005). 미술과의 심리적 교육환경이 자기 효능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 3-6학년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198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p. 638.
- 서숙영(1993). 가정의 환경적인 과정변인과 학업성적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의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교육학 논총, 제12권, 47-59.
- 안귀덕(2003). 교육환경과 자아실현, 도서출판 원미사, P. 148-150.
- 안재영(2006).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가 미술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논문집, 제47집. pp. 103-115.
- 우인아(2006). 집단미술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 (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규인(2005). 자기노출훈련이 자기효능감, 가지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 이규선 외(2001). 미술교육학.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교육과학사.
- 이련경(2004). 미술교육에 있어서 실기환경 개선 방안:서울지역 중학교 미술실기 환경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8.
- 이상욱, 김운삼(2001).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진리논단, pp.635-663.
- 이상섭(1993). 평생교육체제를 지향하는 교육환경론. 형설출판사.
- 이상희(2001). 고등학교 미술교육 실기환경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 p. 22.

이성도(1999). 미술과 수업에서 교육매체 활용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원교육, 제 15권. p. 228-240.

이성도, 김혜숙(2003). 미술표현활동과 교실환경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총론, 제 16집. 한국미술교육학회.

이성도, 김혜숙(2003). 미술과 수업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 17집. 한국미술교육학회.

이승곤(1994). 중학교 미술실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옥형(1992). 교육심리학. 서울: 집문당.

이용남(2007). 교육환경으로서의 인간의 심리적 특성. 『교육원리연구』, 12(2), pp.1-20.

이종금(2000). 초등학교 자연과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와 성취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신(1993). 비인간적인 교육환경. 교육학연구 제 31권 제2호, p. 105-107.

이정애(1995). 미술교육향상을 위한 교육환경의 실태조사 연구:경기내 중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8.

이재천(1998). 과학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조성되는 심리적 학습환경측정 도구개발,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학술정보.

이재천, 김범기(1998). 과학수업에서 교사에 의해 조성되는 심리적 학습환경측정 도구개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pp.313-325.

이현영(2008). 중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8-39.

이향(2000). 『연령별 미술 실기 지도』. 양서원

장병립(1970). 교육심리학. 서울: 박영사.

- 장상호(1991). 교육학 탐구영역의 재개념화. 『교육학연구』, 91-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장상호(1997). 교육의 재개념화에 따른 10가지 새로운 탐구영역. 『교육원리연구』, 2, p. 111-212.
- 정원식(1975). 교육환경론, 서울출판사. pp.33-89.
- 정원식(1976). 교육심리학연구의 반성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Vol.2 No.2.
- 정원식 외 2인 공저(1994). 교육심리학, 교육출판사, P.125.
- 정해순(2006). 자아개념, 자기조절학습, 자기효능감 및 미술학습 성취동기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봉환, 임경희(2000). 초등학생 진로인식을 위한 학습흥미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No.11. pp.231-257.
- 차경수(1987). 교육환경의 실태와 개선방향. 교육환경의 개선방향. 서울:교육개혁심의회.
- 차상희(1998). 위계적 자아개념 모형과 성취동기간의 관계, 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수정 (2008). 청소년의 외모만족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04. 미술교육 이론의 탐색. 도서출판 애경.
- 홍정근(1998). 이제는 교육환경을 생각하자, 교회교육 환경에 관한 소고, 교육교회 통권 254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 황정규(1998).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 황지희(2003). 집단미술치료가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성과 학습흥미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향숙(2002). 자기교시 훈련이 미술학업성취와 자기조절 및 메타인지 인식 능력에 미치는 효과.
- 허만영(2001). 통계분석론, 서울; 법문사.

- Atkinson, J.W. & Reaher, N.T.(1996). *A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New York: Wiley.
- Atkinson, J. W. & Brich, D. (1978). *Introduction to motivation*. New York: Von Nostrand Co.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 Cervone, D.(1983). Self-evaluative and self-efficacy Mechanisms governing the motivational effects of good syst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017-1028.
- Bloom, B.S. (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Y : John Wiley & Inc
- Bloom, B. S. (197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 McGraw-Hill.
- Borich, G. D.(1988). *Effective Teaching Methods*. Merrill publishing company, Columbus, Ohio 43216.
- Brophy, J. & Good, T.(1986). *Teacher Behavior and Student Achievement*. In M. C. Wittrock(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Third edition(pp. 328-375). New York: Macmillan.
- Coleman, J. S.(1968).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 7-32.
- Collins, J. L.(1982). Self-efficacy and ability in achievem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ERA*. NY.
- Corno, L. & Mandinach, E. B.(1983). Using existing classroom data to explore relationships in a theoretical model of academic

-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Eden, D., & Aviram, A. (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352-360.
- Gage, N. L.(1963). Paradigms for Research on Teaching, in N. L. Gage(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Chicago:Rand McNally & Co.
- Gaitskell D. Charles (1982), 『Children and Their Art』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Atlanta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p. 140-145.
- Gist, M. E., & Mitchell, T. R. (1992). Self-efficacy: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 183-211.
- Haukoos, G. D. & Penick, J. E.(1987). Interaction effect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classroom climate, and science achievement. *Science Education*, 71(5), 735-743.
- Holden, G.(1991). The related outcomes: A meta-analysis. *Social Work and Health Care*. 16, 53-93.
- Kear, M.(2000). Concept analysis of self-efficacy. *Graduate Research in Nursing*: <http://graduatereseach.com/Kear.htm>.
- Koffka, K. (1935).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Company.
- Laura H. Chapman (1978), 『Approaches to Art in Education』 (New York, San Diego, Chicago, San Francisco, Atlanta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p. 409.
- Maddux, J. E. ed. (1995). *Self-Efficacy, Adaptation, and Adjust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Plenum Press, P. 4.

- Mason, J., and Mckinney, J. D., and Clifford. M., (1957). *Relationship between Classroom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67, No. 2, pp198~203.
- McClelland, D. C., Atkinson, J. W., Clark, R. A. & Lowell, E. L. (1953). *The achievement motive*. N.Y.: appleton-Century-Crofts, Inc.
- Medley, D.(1982). Teacher Effectivenss, in H. E. Mitzel, et al(eds.),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N. Y. : The Free Press.
- Meichenbaum, D. H.(1977). *Cognitive-behavioral modification: An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Plenum.
- Moos, R, H. (1979). *Evaluating Educational Envrionments: procedure, measure,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San Francisisco, JosseyBass.
- Owen, S. V. & Froman, R. D.(1988). Development of a college academic self-efficacy. *Reports-Research, Speeches/Meeting Papers*.
- Pajares, M.(2002). Overview of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elf-efficacy: <http://www.emory.edu/EDUCATION/eff.html>.
- Peteson, C. & Stunkard, A. J.(1992). Cognates of personal control: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 and explanatory styl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 111-117.
- Ryans, D. G.(1960). *Characteristics of Teachers*, Washing D. C. :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Schunk, D.(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48-58.
- Schunk, D.(1989).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71-86.
- Schunk, D.(1989a).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B. J. Zinnernad, & D. Schunk(Ed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ch, and practice(pp. 83-110). New York: Springer-Verlag.

Shavelson, R.J., hubner, J.J., Stanton, G.C.(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 Research*, 46, 407-441.

Vispoel, J.H.(1973). The relationships of self-concept and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6, 378-381.

Walberg. H. J. (1986). Synthesis of research on teaching. In M. C. Wittro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 Third edition (pp.214-229). New york : Macmillian

Woolfork, A. E. (1995). *Educational psychology*. Needham Heights M A: A Simon & Schuster Co.

Zimmerman, B. J.(1989). A social cognitive view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81(3). 329-339.

Zimmerman, B. J.(1995). Self efficacy and education development. In A. Bandura(Ed.), *Self 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pp. 202-23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 록>



5. 미술과목이 재미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답을 있는 대로 ○를 하세요.

- ①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없다.
- ② 생각한대로 잘 표현 할 수 없다.
- ③ 생각한대로 잘 꾸미고 만들 수 없다.
- ④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적이 별로 없다.
- ⑤ 미술활동이 다른 과목보다 재미없고 힘들다.
- ⑥ 미술 준비물이 많아 귀찮다.
- ⑦ 기타( )

6. 다음 내용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과 가장 비슷하다고 여기는 곳에 ○를 하세요.

설문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미술시간에 하는 미술활동(그리기, 만들기 등)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미술작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던 신경 쓰지 않고 미술활동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3	주제가 어렵거나 힘들어도 나는 미술활동이 재미있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조금 어려운 주제라도 노력하면 훌륭히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학교 미술활동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넓은 책상, 개수대, 사물함, 냉난방시설, 환풍기, 작품보관함 등)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우리학교 미술활동 공간의 크기와 위치가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우리학교는 미술 준비물이 잘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리학교 미술활동이 너무 재미있고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미술 재료가 새롭고 흥미로우면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0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은 나에게 여러 방법(이야기, 그림, 비디오 등)을 통해 미술 활동을 재미있게 지도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학교 미술선생님은 나의 미술작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칭찬을 자주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학교 미술선생님은 교실 분위기가 자유롭고 재미있게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학교 미술선생님은 내 그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부모님은 나의 미술작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칭찬을 자주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부모님은 나의 작품의 색깔, 혹은 완성도에 대해 마음에 안 들어 하신 적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부모님은 나의 미술작품을 친구나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친구들은 나의 미술작품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친구들은 나의 미술작품을 보고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친구들은 내가 미술활동을 할 때 잘 도와주고 함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미술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미술상장을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작품은 종종(가끔) 선택되어 학교에 전시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미술 상장을 받기 위해 잘 그려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수고하셨습니다.

## ABSTRACT

The research o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rt education environmental and  
the art curriculum of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interest

Kim, Ji-hye

Major in Art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 Purpose

This research chose the physica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studies as the variables to research as they were identified as the features that would have the most meaningful impact, out of a number of various definitive variables, on the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interesting of art education of those children in the 4-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n an attempt to identify the features of the art education environment, achievement motivation, self-efficacy and learning interesting, differences of the variables in terms of gender, grade, school were verified first. In order to determine the degre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art education environment, achievement motivation,

self-efficacy and learning interesting, their correlation was verified and the effects of the achievement motivation, self-efficacy, learning interesting on art education environment was analyzed. Through this kind of research, I tried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students by gender, grade and school,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 education environment,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interesting in art, and provide details tips on teaching/learning art.

The study area is located in Seoul,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three places (1. school with harsh environments where is no art room, 2. school with the art room where isn't use well, 3. school with the latest facilities art room) is selected and around 90 students, 4-6 grade, grade one by one who surveyed total 270 students was conducted.

Survey questions about the art learning environment with the research (the reason, Kim, hye-suk, 2003; Bang, hui-jeong, 2005) based, self-efficacy, and said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research Kim, eun-jin, 2004; Kim, il-tae, 2000; Hwang, hyang-suk, 2002), etc. See the preceding paper was complemented by research to fit purpose.

Collected data is computized by SPSS / PC + program. This study used statistical analysis for hypothesis testing methods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gender, grade of significance for the difference betwee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in order t, these school separate analysis of variance was used for comparison and in order to analysis union effectiveness and relative importances between educational environment,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interest of art,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 **Hypotheses**

The hypotheses used for the research are as follows:

**[Hypothesis 1]** There should b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ildren of different gender, and grade, in term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interests in art.

**[Hypothesis 2]** There should be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ildren's educational environment in term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interests in art.

**[Hypothesis 3]** There should be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learning environment,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interests in art.

**[Hypothesis 4]** Factors placed under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other factors coming under the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interests in art should have significant impact and its sub-factors.

## **Results**

The results of verification of the hypotheses listed above are as follows :

First, depending on the gender of students learning environment (psychological),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interest, the difference was meaningful in every way, students rank the schools according to the learning environment (physical ),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interes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verified.

Second, depending on only the school facilities' physical education environment,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Third, significant fixed correlation was verified among the art education

environment,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interests and factors placed under each category.

Fourth, it was verified that factors coming under the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interests have parti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art education environment and factors placed under it.

This research prov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interest of art with art educational environment using the data of actual pro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impact that factors placed under the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interests in art have on the art educational environment and its factors are expected to be quite usefully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programs geared for facilitating the student's environment,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learning interests in art and its teaching guidelines in the future.